

#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이석호 · 구정한

---

2010. 10



## 머 리 말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녹색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것처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색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 제고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를 비롯한 선진 금융회사는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녹색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소비자의 친환경행위를 유도하거나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하는 '녹색보험'과 보험사의 일상 비즈니스 및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친환경행위 실천, 기후변화·환경관련 사고의 예방활동, 친환경 사업 등에 대한 투자활동,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칭하는 소위 '녹색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험산업이 본연의 핵심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및 경영행위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것은 실로 어느 산업에서보다도 그 영향과 의미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녹색보험 및 녹색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보험사의 녹색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사 및 정책당국 차원 등

에서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녹색경영을 신 성장동력 및 지속경영 과제로 활용하는 데에 일조하고, 정책당국이 관련된 제도 등을 마련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이석호 박사와 구정한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강성면 연구원, 황진훈 연구원 및 권정춘 연구비서가 자료 수집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본 보고서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두 분의 논평자들과 본 연구원 주례세미나에 참석하여주신 원내 연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0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 목 차

## 요 약

I. 서 론 .....	1
II. 국내외 녹색금융상품 현황 .....	4
1. 해외 녹색금융상품 .....	5
2. 국내 녹색금융상품 .....	31
3. 국내외 녹색금융기반에 대한 비교·평가 및 시사점 .....	47
III.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	50
1.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	50
2. 보험사 녹색경영의 필요성 .....	50
3. 국내 보험사 녹색경영 현황 .....	54
IV. 주요국 보험사의 녹색경영 사례 .....	58
1. 녹색보험 .....	58
2. 녹색사업 .....	89
V.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발전 과제 .....	102
1. 녹색보험 발전 과제 .....	102
2. 녹색사업 발전 과제 .....	110
3.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과제 .....	115
4. 소비자 차원의 과제 .....	119
VI. 결 론 .....	121
참고문헌 .....	122
Abstract .....	126

## 표 목 차

〈표 1〉 소매금융(retail banking) .....	12
〈표 2〉 기업·투자금융(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	22
〈표 3〉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	30
〈표 4〉 은행권 녹색금융상품(기업여신) 실적현황 .....	33
〈표 5〉 은행권 녹색금융상품(예·적금) 실적 현황 .....	38
〈표 6〉 은행권 녹색금융상품(보험, 카드, 보증 등) 실적현황 .....	40
〈표 7〉 금융투자업 녹색금융상품 세부현황 .....	43
〈표 8〉 여신금융사 녹색금융상품 실적현황 .....	44
〈표 9〉 생명보험 녹색금융상품 실적 .....	55
〈표 10〉 손해보험 녹색금융상품 실적 .....	56
〈표 11〉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유발효과 .....	61
〈표 12〉 Green Upgrade Coverage의 보상범위 및 연간 보험료 .....	69
〈표 13〉 주요 선진 보험사의 친환경 기업 및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 .....	99

## 그림 목 차

〈그림 1〉 녹색성장과 금융회사의 녹색경영 개념도 .....	2
〈그림 2〉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	27
〈그림 3〉 지속가능경영의 구조 .....	52
〈그림 4〉 지난 5년간 자전거관련사고 사망자 수 .....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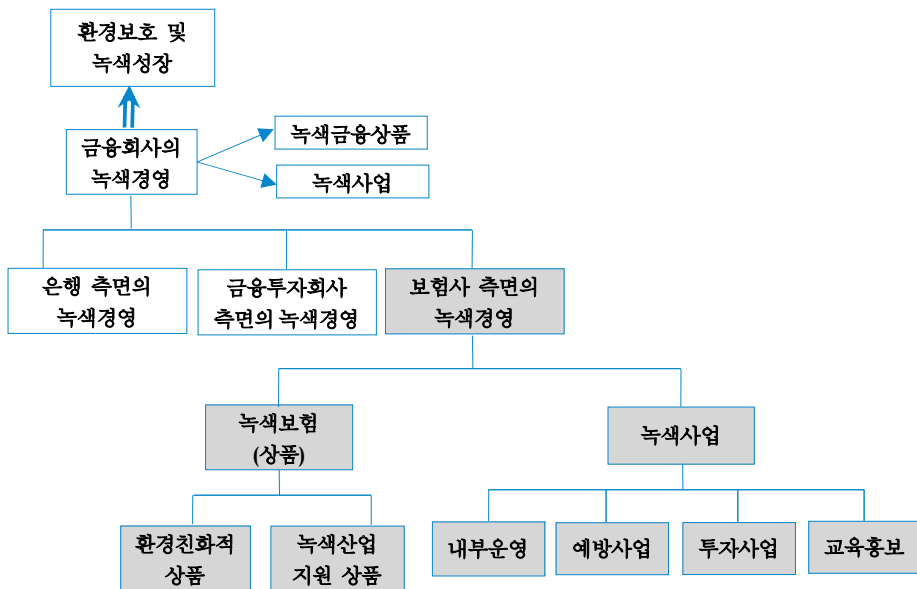
## 요 약

### I. 서 론

-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녹색경영’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함에 따라 녹색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 제고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을 지원·동참하며 또한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녹색경영은 크게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녹색금융상품 및 녹색사업을 통한 방식으로 구분 가능
  -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녹색경영은 해당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의미
  - 녹색사업을 통한 녹색경영은 해당 금융회사가 일상 비즈니스 등의 전개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거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방사업, 투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녹색경영(녹색보험 및 녹색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보험사의 녹색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사 및 정책당국 차원 등에서의 과제를 모색

〈그림 1〉 녹색성장과 금융회사의 녹색경영 개념도



## II. 국내외 녹색금융상품 현황

### 1. 해외 녹색금융상품

- 해외 녹색금융상품은 소매금융, 기업·투자금융, 자산운용, 보험 등 업무 영역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

- 소매금융에서는 주택관련 대출상품이 많고 온실가스 저배출차량 우대 자동차대출, 환경단체 기부 등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등이 존재
- 기업·투자금융 부문에서는 PF, 벤처캐피탈,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존재
-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과 같은 재정펀드, 녹색 투자펀드, 탄소펀드 등이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
- 보험부문에서의 녹색금융상품은 자동차운행거리와 보험료를 연계한 pay as you drive auto insurance, 탄소보험 등이 대표적

## 2. 국내 녹색금융상품

- 우리나라 은행권의 기업대상 녹색여신상품으로는 태양광, LED 산업 등 특정 녹색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 있고, 이러한 여신상품은 때로 여신금리·수수료 우대, 일정 한도 내에서 무담보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포함
  - 녹색여신상품의 전체 판매실적은 2009년 9월 4조 3,648억원에서 2010년 2월 현재 5조 6,886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은행권의 녹색 예·적금상품은 주로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 전자방식 통장 사용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혜택 제공, 판매실적과 연동한 녹색성장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 등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 대부분
  - 녹색수신상품의 규모는 2009년 9월말 9조 2,062억원에서 2010년 2월 말 현재 9조 7,306억원으로 확대된 상황

- 한편,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율, 보증금액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엔 농협, 국민은행 등과 협약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민간 금융투자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녹색금융상품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
  - 펀드명에 녹색, 재생, 태양, 대체, SRI, WATER, GREEN, 그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펀드를 합계할 경우 녹색펀드의 규모는 2009년 9월말 1조 703억원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1조 1,906억원으로 확대
- 카드사의 녹색금융상품은 주로 환경관련 단체에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
  - 그 외 여신금융사는 에너지절감시설, 그린홈,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의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규모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

### 3. 국내외 녹색금융기반에 대한 비교·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녹색금융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녹색금융의 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실정인데,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인 때문
  -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미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출시한 녹색금융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금융상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 해외에 비해 녹색 소매금융상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해외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이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
- 해외 금융회사들은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탄소시장 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와 같은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
- 해외 금융회사들은 SRI 지수 등 녹색 인덱스를 개발하여 금융지원에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덱스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

■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금융시장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이 필요

- 한편 정부는 정부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 자금이 민간 금융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녹색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

■ 한편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고위험·고수익 자금이 녹색산업에 효율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비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축소가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시장에서의 자금회수 채널이 코스닥시장 IPO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모태펀드의 역할도 중요

### Ⅲ.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 1.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크게 녹색보험 및 녹색사업으로 구분 가능
  - 녹색보험은 소비자의 친환경 행위를 유도하거나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또는 사업영역을 의미
  - 보험사의 녹색사업은 해당 보험사의 일상 비즈니스 등의 과정에서 친환경행위 실천, 환경관련 위험관리활동, 친환경기업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활동, 각종 교육·홍보·정책활동 등을 의미

#### 2. 보험사 녹색경영의 필요성

-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비중 측면을 고려한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 필요
  - 보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입 규모 측면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의 위치를 차지
  - 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험산업이 본연의 핵심상품(업무) 및 사업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것은 실로 어느 산업에서보다도 그 영향과 의의가 큼.
-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해당 보험사 입장에서도 경쟁력 제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서 모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녹색경영은 보험사에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경영과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보험사는 각종 위험의 담보 등을 통해 기후변화위험 등과 관련된 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녹색경영의 실천은 손해를 감소를 통한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
- 보험사가 녹색경영의 실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지구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녹색경영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국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녹색경영 동참이 필요

### 3. 국내 보험사 녹색경영 현황

- 국내 보험권의 경우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종류 및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
- 최근 들어 일부 국내 보험사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등의 차원에서 녹색경영의 또 다른 형태인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단순사업 위주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IV. 주요국 보험사의 녹색경영 사례

### 1. 녹색보험

- 녹색보험상품은 상품자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여 디자인되어 있는 소위 '환경친화적 보험상품'과 보험의 기능을 통해 녹색산업을 지원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소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이 존재

#### 1)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pay-as-you-drive auto insurance)

-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를 지칭
  - 현재 자동차보험은 연령, 성별, 사고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행거리를 반영하는 제도임.
- 이러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유럽 등의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유류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 발생이 기대

- 보험가입자의 경우 운행거리 감소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평상 시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의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운행 대수가 줄게 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유류가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

■ 미국의 경우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을 출시한 대표적 보험사로 Progressive사, GMAC사 등을 들 수 있음.

- Progressive사의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인 'Myrate'는 운전거리, 운전시간대, 운전방식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

■ 그 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을 출시 중

## 2)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이 제대로 인도(delivery)되지 않을 다양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의미

- 탄소배출권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을 위험으로 기술적 요인리스크, 신용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가격리스크 등이 존재

■ 현재 출시 중인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으로는 탄소배출권 인도 보험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위험 보험 등이 있음.

- CHARTIS사의 탄소배출권 인도 보험은 기술적 요인으로 탄소배출권이 생성되지 않거나 국가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이 발생하지 않아 인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대해 보상
- Zurich사의 보험상품은 투자자가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에 있어 탄소배출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행위 등이 유발될 리스크를 헤지하는 상품

### 3)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

-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은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등에서 화재나 여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친환경자재를 기준으로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상품을 지칭
- 동 상품이 활성화되어 건축물에 친환경자재 등의 활용이 많아질 경우 환경보호에 적잖은 기여효과가 예상되고, 아울러 해당 보험가입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 미국 ‘Green Building Council’에 따르면 친환경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에너지를 40%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한편 친환경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주택소유자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과금 할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음.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출시 중인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으로는 미국 Lexington사의 ‘Upgrade to Green Residential’, FFIC사의 주택종합보험, Farmers사의 ‘Eco-rebuild’ 등을 들 수 있음.

#### 4) 녹색증권(green policy)보험

- 녹색증권(green policy)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보험회사는 일정 금액을 녹색성장사업 등에 기부하는 보험상품을 지칭
  - 특히 보험가입자가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녹색성장사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 녹색증권보험의 대표적 예로 미국 Allstate사의 'Easy Pay Plan' 등을 들 수 있음.

#### 5)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

-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부품 교체 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재활용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을 의미
-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의 활용은 자원 절약을 통한 저탄소·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 절감, 보험료 인하, 영세 정비업체의 매출 향상 등의 효과도 유발
  - 자동차부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적잖은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
  - 중고 자동차부품의 활용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감소될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도 유발

- 또한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매출이 향상되는 효과도 발생하며 자동차 중고부품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은 북미,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

- 미국,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 교환부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중고 재활용부품, 일반부품, 순정부품 순으로 선택·적용하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외장부품은 중고재활용부품 사용이 활성화
- 유럽국가, 일본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중고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명시

## 6)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재물손해 및 소송비용, 정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을 지칭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기업 등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재정증명 수단을 제공
- 동 보험에 가입하는 해당 기업과 보험사로 하여금 오염사고 예방 및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은 환경오염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의 환경보험은 대부분 배상청구기준 형태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약관 단독, 여러 형태의 개별 환경 오염배상책임(EIL: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약관, EIL 및 CGL 통합약관, 기타 통합약관 등의 형태로 판매

  - 현재 미국에서 환경오염관련 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로는 ACE, AIG, Germini, Zurich 등 10개사
- 유럽 국가들은 환경오염보험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공동보험(pool)의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음.

  - 공동보험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등
- 일본의 경우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판매중인 보험으로 일반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 보험, 산업폐기물배출자보험 등이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엔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의 오염담보특약 형태로 환경 오염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 판매중인 점진적오염 까지 보상하는 다양한 형태의 EIL보험은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

## 7) 친환경농산물보험

- 친환경농산물보험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하여 약관상에 정해진 피해를 당하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보상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분 가능

- 첫째, 생산자 입장에서 소위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리스크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상품, 둘째,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
- 이러한 친환경농산물보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가 촉진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대표적 친환경농산물보험으로 캐나다의 Saskatchewan Crop Insurance 를 들 수 있음.
  - 동 상품은 캐나다 농림부의 산하기관인 SCIC가 제공하며 친환경 농산물 과 관련된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보험을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일부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산물배상책임보험을 시판 중

## 8)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험

- 에너지절약보험(energy-savings insurance: ESI)은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의 에너지절감 성과가 예상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
  -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보험 시장의 잠재 규모가 약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험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시행 과정 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16년 2,250억 달러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과 관련된 보험이 있음.

- Willis Holdings사와 Tokio Marine & Nichido사는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의 상품을 판매
- Munich Re사, AXA사는 태양광 발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원의 변동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부족분을 보증
- ACE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운영 등의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

## 9) 자전거보험

■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또는 운전 중인 자전거와 부딪혀 입은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상하고,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 책임손해와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상품

■ 환경보호 실천 유인,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적 유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점차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전거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및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자전거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자전거보험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호주 Real Insurance사의 'bicycle insurance', 영국 E&L Insurance사의 'cycle Insurance' 등이 있음.
  - 동 상품들은 자전거와 관련하여 개인의 목적 및 취향 등에 따라 일반 상해보험과는 차별화되게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소위 '녹색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판매실적이 저조

## 2. 녹색사업

### 1)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의 녹색사업

- 보험사의 내부 운영 차원에서 환경보호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
  - 무엇보다 보험업종도 다른 업종 못지않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
-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사의 내부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들을 통해 녹색경영을 실천 중
  - 많은 보험사들이 사내운영과 관련된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 업무상 종이 사용과 관련하여 재생(recycling)종이의 활용을 독려하고, 가능한 종이(프린트물) 대신 전자상(electronically)으로 업무를 대체 할 것을 권유하는 보험사도 많은 것으로 파악

- 또한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하이브리드(hybrid)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업무 등과 관련된 자동차운행으로부터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회사 내부운영과 관련된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사 직원들이 가정이나 회사 밖 생활에서도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하도록 독려

## 2) 보험사 위험관리(예방사업) 측면의 녹색사업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보험사의 녹색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
  - 특히 보험사야말로 기후변화위험 등과 관련된 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파급영향이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기여 차원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사안
- 주요 선진국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사전 인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모델의 개발, 기업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 보험사 독자적으로 혹은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연구지원 활동을 추진
  - 또한 개인, 기업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자동차,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현장(onsite) 위험관리 활동도 전개
  - 보다 광범위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토지, 숲,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역사회 및 정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

- 한편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제공

### 3) 보험사 자산운용(투자업무) 측면의 녹색사업

-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또는 투자업무 측면에서도 녹색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 중
- 보험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친환경주택 등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
  - 친환경적이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또는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율을 우대해 주는 상품을 출시
  - 일반 소비자 대상의 대출상품 외에도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사례도 존재
- 한편, 주요국 보험사들은 친환경 기업 및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비중은 높지 않은 수준
  - 보험사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투자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전체 친환경 관련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수준
  - 대표적인 사례로는 AIG사의 스페인의 태양열 광전기 프로젝트에의 투자, Swiss Re사의 대체에너지 및 재활용사업 등에 대한 투자, Prudential사의 풍력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등

#### 4) 보험사의 교육·캠페인·정책활동 측면의 녹색사업

-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을 통해서도 녹색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 미국 USAA, 호주 IAG 등의 보험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비자교육에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주요국 보험사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및 다양한 정책 관련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V.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발전 과제

### 1. 녹색보험 발전 과제

#### 1) 환경친화적 보험상품과 관련된 과제

- 녹색보험 중 소위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 녹색보험상품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경우 업무관련 등으로 운전거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대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고, 운행측정 장치 설치 등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
  - 미국에서와 같이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이 강제가 아닌 선택에 의해 운용되거나, 업무용 차량 등과 같이 업무상 운행거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엔 운행거리연계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필요

- 운행거리 측정 등을 위한 소위 블랙박스 장치는 단순히 운행거리 측정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의 경우 보다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주택 소유주에 대한 세금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주요국 보험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투명하고 명확한 친환경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국내에도 미국의 'LEED'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녹색 건물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및 개선이 필요
-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부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재활용부품 사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동차 재활용부품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부품의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소비자뿐만 아니라 재활용부품 정비업체 등 그 외에 자동차 재활용부품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
- 친환경농산물보험상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등이 손실 부담에 대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재보험 시스템의 구축, 역선택 등의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기후의 변동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보험사가 단독으로 친환경농산물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

■ 자전거보험의 경우 현재 시판 중인 상품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상품 디자인을 통해 기존 상해보험 등과의 상품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

## 2)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과 관련된 과제

■ 녹색산업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해당 보험사가 녹색산업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

- 녹색산업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수행되고 신소재 또는 첨단 기술 등이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외적인 부분의 리스크(예 : 정치적 리스크, 외환리스크 등)가 존재
-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사의 위험인수기능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

■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아직까지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

- 녹색산업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발전단계 등도 산업별로 상이하므로 어떤 분야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특정 녹색산업과 연관된 보험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해당 녹색산업이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 중 어느 리스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함.

-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또는 보험사들 간 상호 긴밀한 공조 하에 녹색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
  -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과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 3) 보험사의 녹색보험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금융상품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
  - 녹색금융상품이 단기적으로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 상품을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제고되는 선순환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이를 위해 보험사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녹색보험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

-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녹색보험에 특화된 소위 ‘녹색보험전문회사’ 및 녹색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중개기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 2. 녹색사업 발전 과제

-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에서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것은 보험사가 환경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요 당사자이며 이해관계자라는 점, 그리고 회사의 신뢰도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중요
  - 대부분의 대중이 금융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고객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회사간의 경쟁은 고객유치 경쟁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점에서 개별 보험사는 내부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 등을 통해 CSR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보험사 스스로 회사의 내부운영 또는 일상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들이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
  - 내부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같은 자율적인 환경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해당 보험사의 비용을 절감시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녹색사업은 개별 보험사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수반하거나 실익이 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지녀야 하고, 사업성격별로 적합한 방식을 통해 추진될 필요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에 적극 대처하는 개인, 기업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 기후변화·환경오염과 관련된 사고예방 등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지원 활동 등과 같은 사업은 그 성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유발할 소지
-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협회 등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보험사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녹색사업은 환경보호 등을 통한 사회기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출 또는 투자처를 발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

- 보험사 차원에서 투자 가능 대상 녹색산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환경관련 컨설팅 업체 등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보험사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
- 또 다른 방안으로 해외 녹색프로젝트와 관련된 경험, 노하우 및 의지가 있는 여타 금융회사와 사업을 연계·공조함으로써 리스크를 공유(risk sharing)하면서 이들 회사의 전문성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국내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관련된 녹색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필요
  -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이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녹색산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사는 용자 또는 투자처 확보를 위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선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당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주요 선진국 보험사에서와 같이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을 통한 녹색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
  -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의 녹색사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책당국자에 제언 등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보험사가 아닌 협회차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 3.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과제

- 무엇보다도, 환경규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규제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규제 관련 리스크가 높지 않도록 할 필요
  - 만약 보험사가 새로운 규제에 따른 수요에 기반하여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나 도입된 환경규제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 보험사는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소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위험과 관련된 공시(climate risk disclosure)를 강화할 필요

- 이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관련 보험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또한 이러한 공시자료를 통해 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

■ 정부 등의 차원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산업부문의 환경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제도 등을 마련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

- 보험회사를 포함한 개별 금융회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정부, 협회 등의 차원에서 제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부문의 환경리스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점진적으로 제조업 등 일반기업이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
- 제조업 등의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야 해당 기업 및 이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험을 헤지하는 일환 중의 하나로 녹색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 한편 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변화 및 제고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협회 등의 차원에서 교육·홍보기능도 강화할 필요

#### 4. 소비자 차원의 과제

- 일반 소비자들은 환경,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에 대한 수요자(구매자)임과 동시에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므로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보험상품 및 녹색사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
  - 따라서 감독·규제를 시행하거나 각종 정책적 유인 등을 제공하기에 앞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제고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

## VI. 결론

- 궁극적으로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CEO 등 최고경영진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및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향한 의지, 아울러 환경보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향상이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를 유발하고 해당 금융회사 차원의 녹색사업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한편, 향후 녹색금융상품 및 녹색사업을 통한 녹색경영의 실천은 해당 금융회사 CEO 등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되는 ‘선택사항’ 성질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

-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향후 국제적으로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금융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영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
- 상품개발 및 일상 비즈니스 측면 모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간의 차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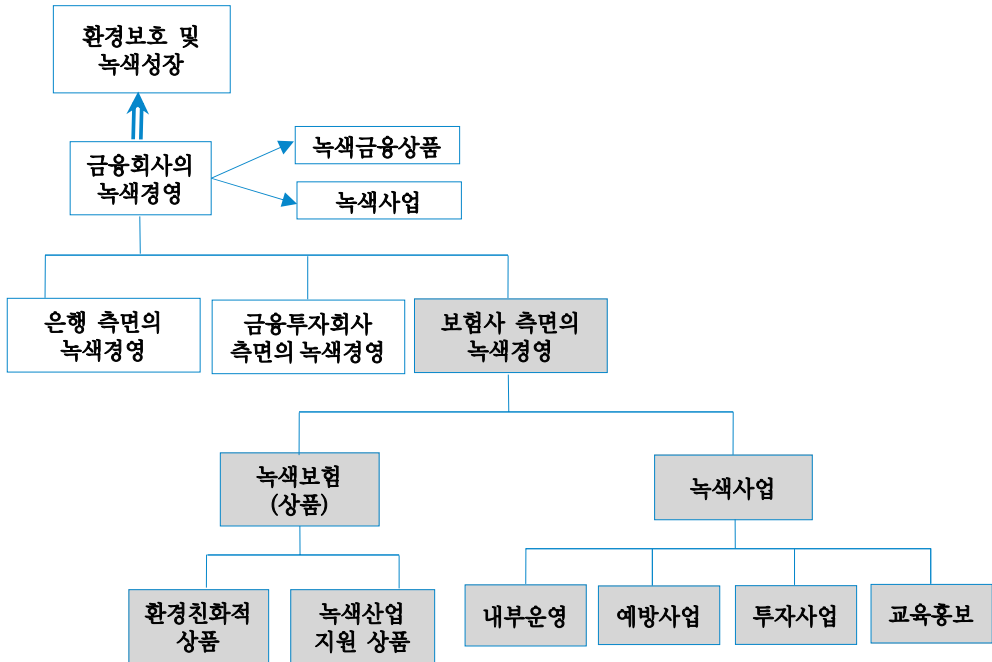
## I. 서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녹색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것처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sup>1)</sup>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 제고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동참하는 형태는 첫째, 해당 금융회사의 고유기능 상품(또는 업무) 부문을 통한 방식, 즉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기여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 둘째, 해당 금융회사가 일상 비즈니스의 전개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거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방사업, 투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녹색경영이란 바로 이 두 가지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와 같은 금융회사 측면의 녹색경영의 의미와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보험사 측면의 녹색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 구정환,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12 참조

〈그림 1〉 녹색성장과 금융회사의 녹색경영 개념도



보험사에 있어 첫 번째 녹색경영 방식에 해당되는 녹색보험의 경우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지원 등과 관련된 보험관련 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상품에 대한 개념 및 정보조차도 부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는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에 손해복구비용 산정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용(green upgrade coverage)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및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보험상품도 판매되고 있는데, 동 상품의 출시로 대기오염 감소, 유류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심지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녹색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또는 보험중개기관 등도 존재하는데 Green Insurance Co, Climatesure, Milemeter, Renewco Underwriting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이처럼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일상 비즈니스에 환경적 요인을 접목시키거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방사업, 투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llianz, ING, Axa, State Farm, Swiss Re사 등은 보험사의 전통적인 강점인 위험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위험 및 기후변화 위험 등과 관련하여 제조업체 등 일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고예방(loss prevention)활동 및 연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친환경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녹색경영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녹색금융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IV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녹색경영 사례를 다양한 종류의 녹색보험(상품)과 녹색사업(예방사업, 투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구분지어 살펴본다. V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녹색보험 및 녹색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보험사의 녹색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사 및 정책당국 차원 등에서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국내외 녹색금융상품 현황<sup>2)</sup>

금융회사의 녹색금융과 관련된 과제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있다. 녹색금융 상품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사회에서 환경이슈와 관련한 기회 및 리스크를 인지하여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BNP Paribas사의 경우 이사회가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특정 서비스 수요가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기후변화 시장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둘째, 금융회사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의 Banca Intesa사는 BNP Paribas사의 경우와는 달리 배출권 거래 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창출 기회를 인식하여 배출권 거래 데스크(emissions trading desk)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2) 본 장에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국내외 녹색금융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보험사 측면의 녹색금융상품은 III장 및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 1. 해외 녹색금융상품<sup>3)</sup>

### 1) 소매금융(retail banking)

#### 가. 주택담보대출(home mortgage)

그린모기지 상품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경우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개발한 그린모기지(green mortgages), 에너지 효율모기지(energy efficient mortgages: EEMs)는 소비자가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를 설치하는 데 투자하는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은행은 기존 주택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동력(green power)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비용을 충당하여 주고 이를 동 상품을 마케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CFS(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은행은 모든 모기지 차입자에 무료로 주택 에너지 등급을 측정하여 주고 매년 차입자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1/5 이 상쇄(offset)<sup>4)</sup>되도록 Climate Care에 기부하고 있다. 호주의 Bendigo Bank는 현재 주거용 주택에 대한 변동 이자율보다 연 0.5% 포인트만큼 낮은 금리를

3) UNEP Finance Initiative(2007a)의 서베이는 해외 녹색금융 상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본 절은 동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구정환(2009)의 내용 일부를 발췌함.

4) 탄소상쇄(carbon offset)는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줄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carbon neutral) 또는 탄소제로(carbon zero)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배출량만큼을 완전히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 구입 또는 나무를 심거나 석탄, 석유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적용하고 월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는 'Generation Green<sup>TM</sup> Home Loan'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할인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차입자로 하여금 주택의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그린모기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다. 2007년 1월 영국정부는 상위 100개 모기지 대출기관에 친환경적 모기지상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조치는 영국정부가 2007년 6월 도입한 '에너지실적인증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EPCs)<sup>5)</sup>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졌다. 대출기관은 낮은 이자율, 수수료 면제, 높은 LTV 비율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입자는 최소주택규제기준(minimum building regulations standard)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대출을 현 주택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작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영국의 대형 모기지 대출자인 HBOS, Abbey사 등은 그린모기지 또는 에너지효율 금융상품의 개발을 약속하였다.

호주정부는 녹색대출(green loans)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의 지속가능성 심사(home sustainability assessment)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green loans subsidy)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주택의 지속가능성 심사를 받은 가계가 태양력 발전설비, 에너지 효율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최대 10,000달러까지의 이자를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가계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녹색 모기지 프로그램(green mortgage scheme)은 신규 주택 또는

---

5) EPCs는 주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energy efficiency rating)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음. 2008년 10월부터 영국에서 주택을 설립, 매매, 임대할 경우 반드시 EPC를 필요로 하고, 각 건물은 A에서 G까지의 등급이 부여되었음. A등급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의미하고 G등급은 가장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D등급이 전체 건물의 평균 등급임.

수리계획(renovation projects)이 일정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국내은행이 모기지 이자율을 1% 낮추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을 통한 이자율 인하 한도가 제한적이고 기준 또한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나. 상업용 건물 대출(commercial building loans)

캐나다 토론토시의 Toronto Atmospheric Fund(TAF)와 캐나다의 가장 큰 아파트 개발업자인 Tridel<sup>®</sup>은 'Green Loan Initiative'를 통해 녹색 상업용 빌딩 대출(green commercial building loans)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 프로젝트가 설립되면 독립적인 검증기관(verifiers)이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고 대출이 이루어진다. 아파트 개발회사(condominium corporation)는 일반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하는 냉·난방, 전기비용을 재원으로 펀드를 만들어 대출을 상환한다. 'TAF/Tridel<sup>®</sup> Green Loan'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규 또는 보수하려는 건물이 일반 건물에 비해 2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Wells Fargo사는 환경 친화적인 상업용 빌딩에 대한 우대정책을 사용하여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자사의 평판(reputation)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다. 홈 에쿼티 론(home equity loan)<sup>6)</sup>

홈 에쿼티 론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제시할 경우 가계로 하여금 주거용 재생

---

6)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모기지론과 다른 점은 대출 시점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는 점임.

에너지 기술(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기유인적인 상품을 제공할 때 대다수 은행들은 기술제공사 및 환경 NGOs(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와 제휴를 맺어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New Resource Bank(NRB)는 미국 소비자의 주거용 태양발전 시설 설치(residential solar power installations)를 유도하기 위해 one-stop financing 상품을 개발하였다. NRB는 고효율 태양력 기술업체인 SunPower Corporation과 제휴하여 태양력 패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가 되므로 태양력 사용에 대한 비용이 더욱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라. 자동차 대출(auto & fleet Loan)

낮은 온실가스 배출차량 및 높은 연료 효율등급을 가진 차량을 대상으로 시장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진 대출상품을 통해 환경문제를 경감시켜 주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은 주로 호주 및 유럽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녹색 자동차 대출(green car loans)은 신용조합(credits union)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대출상품은 소형 금융기관이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므로 소형 금융기관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신용조합인 Mecu는 차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Mecu는 대출기간 동안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100%를 상쇄(offset)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goGreen<sup>®</sup>상품의 등장으로 Mecu의 자동차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유럽에서의 녹색 자동차 대출은 교통수단이 온실가스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CFS은행은

모든 자동차 대출에 연료효율적인 운전법 등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CFS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1/5을 상쇄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Fortis Bank는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에 대한 대출에 있어 10%를 상한으로 상당한 이자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차입자에게 벨기에 정부의 세제혜택(tax incentive clean auto scheme)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VanCity사는 2003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대출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다른 저배출 차량도 동 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 상품의 판매는 예상외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급이 제한적이었고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2006년 출시된 VanCity의 'Clean Air Auto Loans'는 광범위한 저배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량을 범주별로 묶어 이자율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혼다 Civic 하이브리드와 같은 차량들의 경우 환경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Tier 1 차량으로 간주하여 일반 차량에 대한 대출이자율보다 3~4% 포인트 낮은 프라임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동 상품의 출시로 VanCity사의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nk of America는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및 화물 운송분야와 제휴하여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ress Loans'를 제공하였는데 동 대출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 회사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구입할 경우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11월 출시한 동 대출상품은 차입자로 하여금 대출상환에 드는 비용보다 연료절감을 통해 얻는 수익을 더욱 크게 하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마. 신용카드(credit & debit cards)

대다수 대형 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녹색 신용카드(green credit cards)는 카드 소유자의 상품구매, 자금이체 또는 현금서비스의 약 0.5%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NGO에 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레딧카드를 상쇄프로그램(offset program)에 연계하는 것이 유럽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해당 카드회사에 큰 비용을 부담지우지 않는 반면, 다양한 형태의 유형·무형의 혜택을 제공하여 준다.

네덜란드의 GreenCard Visa는 온실가스배출 상쇄프로그램(emissions offset program)을 제공하는 첫 번째 신용카드라 할 수 있는데, 동 카드는 GreenCard Visa를 통해 구입한 상품·서비스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75유로의 가입비를 지불하지만 그 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금융회사는 NGO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Rabobank의 'Climate Credit Card'의 경우 소비자가 동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에 비례하여 'World Wildlife Fund(WWF)'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Barclays의 'Barclaycard Breathe'는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PETG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 또는 대중교통 패스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며, Barclaycard의 세후수익의 절반을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Barclays는 "우리 여기 함께(We're in this together)"라는 캠페인을 통해 모든 영국 가계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탄소배출량을 1톤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바. 예금통장(personal accounts)

호주의 Westpac은 'Landcare Term Deposit'을 출시하여 예금주의 평균잔고에 연동하여 Landcare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동 상품은 Westpac의 기타 정기예금과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예금주가 환경보호 목적으로 예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Shorebank의 'EcoDeposits'<sup>®</sup>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는 종이 형태의 계좌잔고증명서 배달을 선택하지 않은 개별 가상계좌 신청자 당 \$1(\$500,000까지)를 NGO에 기부한다. 이는 은행 잔고증명서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산림벌채(deforestation)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사. 기타 상품

2007년 1월 HSBC는 고객들이 전통적인 은행상품을 선택하였을 때 £2를 다양한 환경 NGO들에 기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HSBC는 모기지, 예금계좌,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상품이 녹색상품에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은행들의 녹색금융상품 중 하나는 환경리스(environmental leasing)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친환경 기술을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캠페인 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리스를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 및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등을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은행들이 소규모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일반적으로 신용공여가 거부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론(micro loans)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Credit Suisse, Société Générale, Santander, Barclays가 이러한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소매금융(retail banking)

상품 및 서비스	연구 은행	지역	핵심 상품 및 결과(예상)
Home Mortgage	Dutch Bank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주도의 '그린모기지' 이니셔티브</li> <li>· 출범초기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음.</li> <li>· 그러나 상품이 오래 지속되면서 네덜란드 내의 그린 모기지 수요는 증가함.</li> </ul>
Home Mortgage	CFS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무료로 주택 에너지 사용등급 측정</li> <li>· 탄소배출량을 상쇄</li> <li>· 2005년에만, 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상쇄</li> <li>·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예정</li> </ul>
Home Mortgage	Abbey, HBOS, Halifax 외 기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내 이 은행들만이 그린 모기지를 발표했으며, 이 중 몇몇 은행은 자국 최대 규모의 모기지 제공자임.</li> </ul>
Home Mortgage	Bandigo Bank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neration Green™ Home Loan</li> </ul>
Home Mortgage	VanCity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imate Change Mortgage</li> <li>· 잠재적 환경 이득이 높음.</li> </ul>
Energy Efficient Mortgage	Citigrou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Fannie-Mae가 개발한 상품</li> <li>·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절약한 전력은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들어오도록 설계</li> <li>· Citi는 상품의 수요 증가를 위해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판로를 늘릴 예정임.</li> </ul>

Power-Oriented Home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자에게 재생 가능 전력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li> <li>· 주택의 물리적인 면보다는 지속가능성 고객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li> </ul>
Commercial Building Loan	NRB, Wells Fargo, TAF/Tridel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콘도 건설을 위한 Green Loan</li> <li>· 이 프로젝트는 물, 공기, 에너지, 폐기물 처리, 스마트 빌딩 기술과 같은 혁신을 모두 포함</li> <li>· 기존의 건물보다 25%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li> </ul>
Home Equity Loan	Citigroup, NRB, Bendigo, Wainwright Bank & Trust, CFS, VanCity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RB One-Step Solar Financing</li> <li>· 만료기간이 태양 전지판 보증기간과 동일</li> <li>· Citigroup은 가정용 태양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solar homeequity loan을 2006년에 발표</li> </ul>
Home Equity Loan	Bank of Americ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vironmental Home Equity Program</li> <li>· Visa Access Credit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은행은 ENGO에 기부</li> </ul>
Auto Loan	mecu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Green Auto Loan은 성공적인 “그린” 상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음.</li> <li>· 개설 이래 은행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45%나 증가</li> </ul>
Auto Loan	VanCity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조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상품에서 배출량이 낮은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전환 Clean Air Auto Loan을 출시</li> <li>· 비록 Hybrid Loan 옵션이 “고객 유치 및 관계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상품자체는 많이 팔리지 않음.</li> </ul>
Fleet Loan	Bank of Americ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ress Loan은 인가 절차가 신속하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만기가 유연함.</li> <li>· 주로 연료 효율이 좋은 기술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트럭수송업체에 제공됨.</li> <li>· SmartWay Upgrade 설비를 구매하도록 도와서 연비를 15% 향상시킴.</li> </ul>

14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Credit Card	CFS, MBNA(BOA), Shorebank Pacific	Vario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finity Cards</li> <li>• 대부분이 연율 12~22%의 연회비가 있다. MBNA의 Sierra Club Cards은 특별히 성공적이었음. 1994년부터, 4만 5천명의 회원들이 Sierra Club Visa에 가입</li> <li>• 결과적으로 40만 달러의 기부금이 환경 NGO에 전달됨.</li> </ul>
Credit Card	Rabobank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imate Credit Card</li> <li>• 은행은 카드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에너지 집약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WWF에 기부함.</li> </ul>
Credit Card	Tendris Holding B.V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Card Visa는 배출 상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임.</li> <li>• 2004년부터 2만명 이상의 가입자 유치</li> <li>• 곧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판매 예정</li> <li>• 2007년,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li> </ul>
Credit Card	Barclays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rclays Breathe Card는 고객이 “그린”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할인과 저이자 혜택을 제공함.</li> <li>• 카드 수익 중 50%는 세계적인 배출 절감 프로젝트에 투자됨.</li> <li>• 영국의 8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We're in the together” 캠페인과 관련되어 있다.</li> </ul>
Credit Card	Bank of Americ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카드소유자들은 Visa World Points를 GHG 절감에 투자하는 기관에 기부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음.</li> </ul>
Deposit	Shorebank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Deposit은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해당 지역의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의 특정 비율을 따로 구분하여 자금을 조달</li> <li>• EcoCash™Checking Account는 매달 무료로 5장의 수표를 제공하되, 이 이상은 장당 3달러의 수수료를 받음.</li> <li>• 이 수수료의 일부는 The Climate Trust로 기부함.</li> </ul>

Deposit	Westpac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ndcare Term Deposit</li> <li>· 호주 최초의 환경 예금상품: 1달러가 사용될 때마다 은행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속가능 농업에 지원</li> </ul>
Sales	Barclays, HSBC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rclays의 고객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할 필요 없이 비행기여행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음.</li> <li>·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상쇄 전문기관 Climate Care와의 제휴하에 이루어지고 있음.</li> </ul>

자료 : UNEP Finance Initiative(2007a), EcoFrontier

## 2) 기업 · 투자금융(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자기자본(equity)과 부채(debt)가 혼합되어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금은 주로 통신, 석유 화학,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부분에 공급되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은행 또는 은행 신디케이트에 상환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30~40%는 자기자본을 통해 충당되고 나머지 60~70%는 부채를 통해 충당된다.

JPMorgan은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을 수치화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수치화된 자료를 재무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Bank of America는 전력부문에 대한 자금조달을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시켜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였다.

Rabobank의 International's Project Financing Department와 Barclays의 Natural Resources Team에서와 같이 주요국 은행들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의 전담 부서 또는 팀을 설치하고 있다. WestLB와 BNP Paribas와 같은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특정 에너지 기술에 특화된 부서를

설치하였는데 BNP Paribas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에 특화하여 2005년 기준으로 전세계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의 13.4%를 담당하였다. 또한 많은 유럽은행들은 포트폴리오에 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해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한도(committed lines)를 설정하고 있다. WestLB의 경우 Pacific Ethanol Inc.의 미국 서부지역 공장설립에 대해 3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바이오연료 부문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exia는 풍력 발전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 리스크가 분산된 풍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자금회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출기관은 설비 및 프로젝트 회사의 자본(equity)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는데, 개별 프로젝트는 관련 리스크로 인해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산효과는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에는 부채상환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 나. 유동화(securitization)

산림채권(forest bond)은 파나마의 대규모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된 채권이다. 파나마운하를 따라 진행되는 재조림 사업은 파나마운하의 수로 관리를 개선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Beyond Timber'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재보험사가 25년 만기 채권을 인수하고 파나마운하를 자주 이용하는 회사와 장기투자자들이 동 채권을 구입하는 형태이다. 미국 상품의 40%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보험회사에 리스크 익스포저(risk exposure)를 크게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산림채권(forest bond)을 구입할 경우 운하 이용자에게는 낮은 보험료(premium)를 지불하게 해 주는 장점을 제공한다.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는 채권

발행으로 구입한 자산(목재, 탄소배출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채권보유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재해채권은 채권의 특성을 보험위험과 결부시킨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서, 보험사가 인수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채권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위험관리기법으로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의 대표적 예이다.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발행된 대재해채권은 투자자에게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재해발생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자 또는 원금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녹색 MBS(green mortgage-backed security)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상업빌딩의 모기지 풀(pool)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동 상품은 운영비용 절감, 녹색설비와 연관된 유형·무형적인 혜택 등으로 다른 MBS에 비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녹색빌딩과 연관된 비용절감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치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환경인프라 구축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World Bank Group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는 부분보증, 리스크 분담(risk sharing), 유동화(securitization) 등을 통해 채권 및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부분보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FC의 'EcoSecuritization'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및 자산유동화 요건을 감안한 것으로, 전통적인 유동화가 수익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동 프로젝트는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다.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벤처캐피탈은 IPO 이전의 환경관련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5년 ABN AMRO Rothschild는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EcoSecurities의 IPO를 지원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007년 캐나다의 CIBC World Markets는 배출권 크레딧을 매매하는 GHG Emission Credit Participation Corp.의 IPO를 주도하였다.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Citigroup 계열의 사모펀드인 Citigroup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CVCI)의 경우 전세계 대체에너지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Citigroup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rogram(SDIP)을 담당하였다. SDIP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삼림(sustainable forestry),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청정기술, 에너지 효율화, 탄소시장 등에 대한 PEF를 만들어 투자하였다. 한편, Bank of America의 사모펀드는 산림보존,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 보존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수행하였다. Bank of America는 비영리 단체가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구매하고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할인된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방식을 통해 100% 자금을 지원하였다.

### 라. 지수(indices)

2007년 2월 ABN AMRO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과 연관된 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개발하였다. JPMorgan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지수화한 미국 기후회사채지수(US Climate Corporate Bond Index)인 'JENI-Carbon Beta Index'를 개발하였다.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 지수는 투자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 탄소배출권 상품 및 서비스(carbon commodity products & services)

탄소시장과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는 주로 유럽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인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때문이다. EU ETS하에서 미국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하여 12,000개의 유럽 산업체에 탄소배출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규제에 따른 기후관련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다수 출현하였다. 대다수 은행들은 기업고객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크레딧<sup>7)</sup>을 획득한다. 특히 HSBC, JPMorgan, Barclays Capital, Fortis, ABN AMRO 등의 경우 포트폴리오 다변화(portfolio diversification), 투자기회 창출 및 리스크 헤지 등을 목적으로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BNP Paribas는 탄소금융(carbon financing)에 있어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동사는 이미 탄소크레딧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2년까지 확보량이 2,5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BNP Paribas는 프로젝트 및 교토 사이클의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탄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계별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미래의 탄소크레딧 판매수익을 담보로 한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경우 EU ETS에 적용되는 회사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관련 전담 데스크(trading desks)를 개설하였다. 배출권은 전기, 가스, 또는 다른 일반상품

7)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은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탄소배출권을 의미함. 탄소배출권으로는 각 국가별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된 AAU(Assigned Amount Unit), 의무감축국간의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ERU(Emissions Reduction Unit), 의무감축국이 비의무감축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비의무감축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이 있음.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인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에서는 EU ETS에서만 통용되는 할당된 배출권 단위인 EUA(European Union Allowance)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등 기존 상품에 추가하여 거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고객에 배출권 전담 데스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수료 목적의 중개서비스, 리스크 관리 서비스 및 마진 획득 목적의 투기적 거래 등을 포함한다.

Barclays Capital, BNP Paribas, Fortis, JPMorgan과 같은 은행들은 탄소배출권 단위인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 CERs, ERUs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까지 거래한다. 2003년과 2004년 사이 EUAs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으나 'ECX(European Carbon Exchange)', 'Nord Pool', 'Pownext Carbon'과 같은 배출권 전문 거래소가 EUA 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CERs와 ERUs의 경우 여전히 장외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Barclays Capital은 영국은행 중 처음으로 배출권 관련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였는데 EU ETS에서 가장 활발하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참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담 데스크는 주로 ① 고객의 EUAs, CERs, ERUs 거래에 대한 중개기능, ② 선도, 스왑, 옵션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기능, ③ 할당량 대출, ④ 할당량의 현금화(EUAs를 담보로 한 단기대출)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일부 은행은 고객의 탄소크레딧 보관(safekeeping), 고객의 레지스트리 계좌관리 및 고객거래 청산기능 등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공공금융기관인 CDC(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는 Pownext(현 Bluenext) 플랫폼을 활용하여 'Pownext Carbon'이라는 탄소배출권 현물거래시장을 2005년에 개설하였다. 'Pownext'는 연속거래 플랫폼(continuous trading platform)으로 CDC가 고객을 대신하여 레지스트리 및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현물인도 및 결제 메커니즘(delivery versus payment mechanism)을 보증한다.

## 바. 기타 상품 및 서비스(other products & services)

기업의 수익이 기후조건에 좌우되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되어 왔다. Goldman Sachs가 제공하는 기후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조건과 연관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금융상품이다. 기후파생과 유사한 상품인 풍력파생상품(wind power derivative)은 풍력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바람이 사업자에 불리한 조건, 즉 손인(peril)이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풍력사업자의 수익이 미리 정해진 수준에 미달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자금이 풍력사업자에게 유입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발행한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지급된다. ABN AMRO, Rabobank, Goldman Sachs 등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금융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재해 옵션(catastrophe options)은 장내시장에서 매매되는 정형화된 계약으로 보험회사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동 상품은 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나타내는 지수가 행사가격(strike price)을 초과하게 되면 구매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동 상품을 거래소나 상품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대재해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게 되고 동 상품의 판매로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다. CBOT(Chicago Board of Trade)의 경우 PCS catastrophe insurance options를 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ebt-for-Nature swap은 debt-equity swap과 유사한 개념의 스왑으로 채무 국가가 외채를 할인한 가격에 인수하여 자국통화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이득을 자국의 자연보호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국은 이로 인해 상환금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미래 부채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87년 Citibank

가 Conservation International에 \$650,000에 달하는 볼리비아 부채를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최초의 debt-for-nature swap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에너지효율 또는 환경요건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Real Estate Mizuho는 환경리스크 실사를 시행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한 환경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ING는 호주 부동산 펀드에 속한 빌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를 감축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ad-hoc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기업·투자금융(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상품 및 서비스	연구은행	지역	핵심 상품 및 결과(예상)
Project Finance	Rabobank, Barclays, BNP Paribas, Fortis, Standard Chartered Bank, Citigroup, WestLB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담당하는 특화된 서비스 부서나 TFT가 있음.</li> <li>· 일부 은행은 BNP Paribas(풍력), WestLB(바이오연료와 풍력) 등과 같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에 특화함.</li> </ul>
Project Finance	Dexi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 파이낸싱 기법</li> <li>·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은 포트폴리오 파이낸싱과 풍력 발전소와 관련 있는 건설 위험을 결합</li> </ul>
Partial Credit Guarantees	IFC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C는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제공</li> </ul>
Securitization	IFC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증권화 거래</li> <li>· IFC는 위험성의 중간단계에서 보증인이나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li> <li>· 위험 분담 조정을 통해 고객의 위험이 IFC로 이전됨.</li> </ul>

Securitization	IFC와 DFID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Securitization은 자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자금동원 능력과 자산지원 증권의 요건과 연결함으로써 “자연 인프라” 파이낸스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li> </ul>
Securitization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Mortgage Backed Security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적 기준을 따르는 건물의 모기지를 하나로 묶음.</li> <li>· 그린 건물의 운영비 절약으로 인한 수익 덕분에 이 상품들은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음.</li> </ul>
Bond	Various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st Bond는 파나마의 대규모 삼림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됨.</li> <li>· 재보험업자는 25년 만기 채권을 인수하고 파나마 운하의 투자자 및 운하를 자주 이용하는 운송업체들이 이 채권을 구입</li> <li>· “Forest Bond의 장기적인 특성이 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li> </ul>
Bond	BNP Paribas,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t Bond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대비한 보조적 자본을 제공함.</li> <li>· Cat Bond는 평균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예금을 보완</li> </ul>
Technology Leasing	Rabobank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동안 Rabobank는 green lease제도로 1억 300만 유로를 조달</li> </ul>
IPO Support	ABN AMRO, Citigroup, CIBC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igroup은 Brasil Ecodiesel의 언더라이터로서 1억 7,700만 달러 규모의 IPO를 인수하여 브라질과 국제시장에 매각</li> <li>· 2003년에 창립된 이 회사는 현재 남미 최대의 바이오 디젤 생산자임.</li> </ul>
Private Equity	Bank of America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모펀드</li> <li>· 6,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는 산림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이산화탄소 억제에 초점을 맞춤.</li> <li>·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지속가능 산림의 유지, 경영을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필요한 자금의 100%를 할인된 금리로 대출해 줌.</li> </ul>

24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단체들은 미국의 목재회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후, 보존지역권을 판매하여 산림이 보존되도록 함.</li> <li>· 지역원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으로 BOA채무를 갚음.</li> <li>· 이와 같은 유연한 금융제도를 통해 벌목 작업을 연간 산림의 최대 3%로 제한하여 지속가능한 벌목을 가능하게 함.</li> <li>· 목재 판매로 얻은 수익은 지역 경제에 재투자됨.</li> </ul>
SPI Equity Research	WestLB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stLB의 SRI Equity Research 상품은 현재 까지 이 상품을 책임지고 있는 자본전략팀의 분석가들에 의해 생성된 상향(bottom up) 이 니셔티브임.</li> <li>· 2001년에 WestLB는 판매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li> <li>· 조사주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명성을 쌓아 오늘날 이 분야의 선두를 지키고 있음; 경쟁사들은 이런 WestLB의 전문성을 모방할 수 없음.</li> <li>· 오직 극소수의 브로커들만이 독립적으로 SRI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li> </ul>
SPI Equity Research	JP Morgan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PMorgan은 고객에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 위험성과 기회성에 대한 투자조사 결과를 제공함.</li> <li>· JPMorgan은 탄소배출권의 잠재적 의무, 지속 가능 청정 에너지의 개발, 탄소포집,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분야를 진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걸친 기후 변화 투자 조사를 시행함.</li> <li>· 특히 이 기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소 억제 제도를 고려한 경제, 입법, 사업 개발 및 회사 가치에 중점을 둬.</li> <li>· 2007년 JPMorgan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최초의 기업채권지수인 Jeni Bond Index를 개설</li> </ul>

Eco-Indices	ABN AMRO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N AMRO의 Private Investor Products 사업은 창의적인 에코상품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맞춰 개발</li> <li>· 은행들은 물과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성공을 이룸.</li> <li>· ABN AMRO는 이 분야에서만 10억 유로 이상의 개인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li> <li>· 이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ABN AMRO의 water index의 가치는 개설된 지 18개월 만에 평균 시장 상승률(10~12%)보다 훨씬 높은 50%를 기록</li> <li>· Solar energy index는 작년보다 30% 상승했고 지난 3년간 300%의 상승률을 기록</li> </ul>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Capital, HSBC, Fortis, ABN AMRO, BNP Paribas, JPMorgan, Goldman Sachs, Citi-group 등	유럽 (북미 소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들은 CDM과 JI 프로젝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 대출 등을 제공함.</li> <li>·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탄소배출권을 따내고, 은행의 트레이딩데스크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배출 수당과 탄소 배출권을 근거로 대출 상품을 개발함.</li> </ul>
Allowance Trading Products	Barclays Capital, HSBC, Fortis, ABN AMRO, BNP Paribas, JPMorgan, Goldman Sachs, Citi-group 등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owance Trading Products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음.</li> <li>· 물리적 순서의 신중한 배치, 고정 또는 변동 스왑, 조정 매매, 옵션, 배출권 재구매, 현물과 선물 거래를 위한 시장조성, 교차상품에 기초한 가격 헤징</li> </ul>

자료 : UNEP Finance Initiative(2007a), EcoFrontier

### 3)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 가. 재정펀드(fiscal funds)

네덜란드의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녹색펀드계획(Green Funds Scheme)’이라 할 수 있다. 동 계획은 녹색프로젝트계획(green projects scheme), 녹색금융기관계획(green institutions scheme), 세제혜택(tax incentiv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계획하에서 정부, 은행, 소비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정 프로젝트가 정부가 제정한 몇 가지 기술적·금융적 요건에 부합하여 녹색 프로젝트(green project)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인증서(green certificate)를 발급한다. 녹색은행(green bank) 라이선스를 취득한 은행<sup>8)</sup>은 고정된 가치(1,000 유로 또는 5,000 유로), 고정된 만기(3년, 5년, 또는 10년) 및 고정이자율을 가진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녹색 프로젝트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낮은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1.2%의 자본이득세<sup>9)</sup> 면제 및 녹색자금 제공에 대한 1.3%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총 2.5%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펀드계획(Green Funds Scheme)’에 따르면 예금자(투자자)는 금리상의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

녹색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은 녹색예금 또는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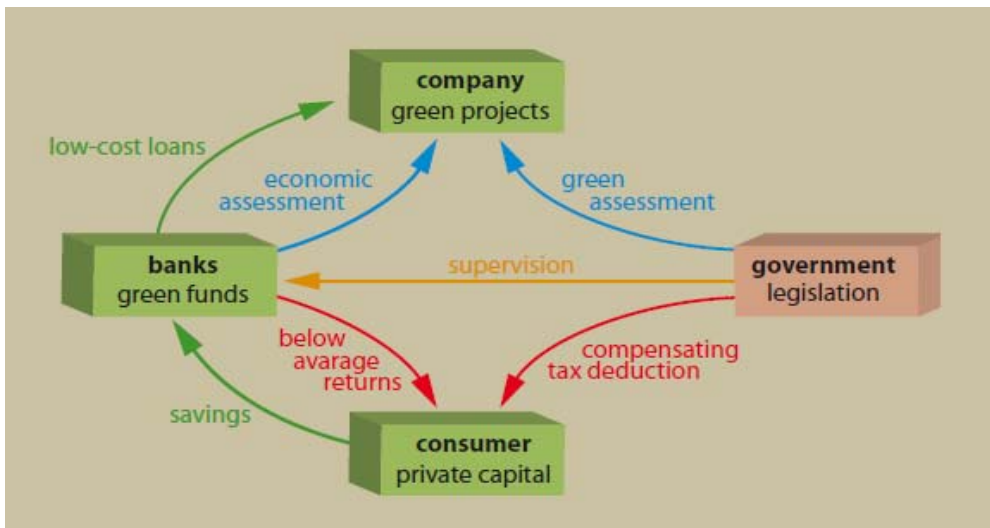
---

8) 대부분의 네덜란드 은행들은 Green Institutions Scheme 요건(requirements)에 부합하는 Green Fund 또는 Green Bank를 운용

9) 2007년 기준 일인당 최대 53,421유로까지 자본이득세를 면제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 프로젝트에 대출하여야 하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녹색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제반비용이 일반대출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대출보다 높은 마진을 책정할 수 있어 수익성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2〉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자료 : SenterNovem

#### 나.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환경과 관련된 투자펀드는 투자 적합성 심사에 있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투자환경의 복잡성과 더불어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세대 펀드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negative criteria)을 취하였다. 2세대 펀드는 사회/환경 정책이나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

(positive criteria)을 채택하였다. 3세대 펀드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적용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 내에서의 상대적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best-in-class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에 시작된 UBS(Lux) Equity Fund인 'Eco Performance'는 상당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출시 4년만에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녹색 투자펀드가 되었는데 총자산의 80%는 환경/사회 선도기업(eco/social-leaders)에게 공급되었고 나머지 20%는 환경 혁신기업(eco-innovators)에 공급되었다. 동 펀드는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이 높아지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이익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UBS는 환경부문 리더들을 전통적 투자전략 수립에 참여시킴으로써 연료전지 기술(fuel cell technology), 유기농 슈퍼마켓 운영(organic supermarket operations), 수질 개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유망한 투자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 투자는 투자후보회사의 성장잠재력, 회사전략 및 운영방식 등을 독립적인 환경전문가와 협조하여 분석한 이후에 결정된다. 'Eco Performance Equity Fund'의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UBS 자산운용 그룹은 이와 연관된 UBS(Lux) Equity Fund인 'Future Energy'를 2005년 중반에 신설하였다. 'Eco Performance'와 마찬가지로 'Future Energy'는 사전에 설정된 에너지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잠재적 수익률이 높으며,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러한 상품의 개발은 미래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저비용 대안에너지, 지구 온난화, 에너지 시장 규제완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과 같은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은행 등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서비스 제공자 및 에너지 공급 회사가 에너지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미래가 밝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UBS의 주된 목표시장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상품 등 청정에너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 다. 탄소펀드(carbon funds)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과 민간 금융회사간의 협조하에 다양한 탄소펀드가 등장하였다. 탄소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CERs, ERUs를 기존 온실가스 배출감축 프로젝트로부터 구입하거나 신규 친환경 사업기회에 투자한다. 정부 주도의 탄소펀드는 정부가 교토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고, 민간 탄소펀드는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동 펀드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마케팅 및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회를 제공해 준다.

Rabobank는 세계 최초의 탄소펀드인 'World Bank Prototype Carbon Fund'에 투자하였고 네덜란드 정부와는 10 Mt CERs 규모의 구입에 대한 협정을 맺는 등 탄소펀드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Caisse des Depots와 Fortis Bank는 각각 2,500만 달러, 1,500만 달러를 'European Carbon Fund'에 투자하였다. Credit Suisse, HSBC, Société Générale, JPMorgan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탄소크레딧 획득 및 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탄소펀드인 Trading Emissions plc.에 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라. 대재해채권 펀드(cat bond funds)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 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Credit Suisse Group은 'Leu Prima Cat Bond Fund'를 만들었다. 동 펀드는 주로 홍수나 가뭄 등 전통적 보험시장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기후관련 물리적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동 펀드는 2002년에 개시하여 대재해채권(cat bonds)에만 투자

하여 왔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자 유사한 종류의 펀드가 2003년에 출시되기도 하였다. ‘Leu Prima Cat Bond Fund’는 2005년 기준으로 5억 3,500만 달러 규모이며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상품 및 서비스	연구 은행	지역	핵심 상품 및 결과(예상)
Green Fund	네덜란드 은행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tch Green Funds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고객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그 대신 은행은 투자액에 대한 이자금을 낮춰서 지급</li> <li>· 이렇게 이자비용을 절약한 은행은 절약한 만큼 녹색 프로젝트에 조달되는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li> <li>· 2005년에 Rabobank의 Green Fund는 6만 3천명의 투자자를 유치하고, 총 20억 유로의 용자를 제공함.</li> </ul>
Green Fund	UBS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BS(Lux) Equity Fund-Eco Performanc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펀드</li> <li>· 개설 후 4년 만에 총 자산이 2억 5,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 중 80%는 환경/사회 분야의 주요업체에게, 20%는 “에코혁신기술업체”에게 지원됨.</li> <li>· 후발 상품인 UBS(Lux) Equity Fund-Future Energy는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있는” 4대 핵심 사업 분야 중 청정 에너지 투자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li> </ul>
Cat Bond Fund	Credit Suisse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u Prima Cat Bond Fund</li> <li>· 채해 채권(Cat Bond)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공공 기금</li> <li>· 이 펀드는 부분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li> </ul>

자료 : UNEP Finance Initiative(2007a), EcoFrontier

## 2. 국내 녹색금융상품

우리나라 은행권의 녹색금융상품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여신상품으로 태양광, LED 산업 등 특정 녹색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이 있다. 이러한 여신상품은 때로 여신금리·수수료 우대, 일정 한도 내에서 무담보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발전소 완공 후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구매하는 전력판매대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개인여신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탄소마일리지 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나 그린자동차 구입 시 금리우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출상품이 있다. 이와 같은 녹색여신상품의 전체 판매실적은 2009년 9월 4조 3,648억원에서 2010년 2월 현재 5조 6,886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은행권의 녹색 예·적금상품은 주로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 전자방식 통장 사용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혜택 제공, 판매실적과 연동한 녹색성장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 등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신상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을 수반하므로 수익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녹색예·적금상품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출시하는 것으로 해당 은행의 평판 및 이미지를 높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인들이 바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녹색수신상품의 경우 금리 또는 수수료 우대가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매력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신상품이 활발히 보급될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하고 있는 예대율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수신상품의 규모는 2009년 9월말 9조 2,062억원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9조 7,306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녹색산업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금액 한도사정 시 우대하며, 보증료를 0.2%p 차감해 주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엔 농협, 국민은행 등과 협약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은 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무분별한 보증서 발급을 억제하고 리스크를 기술보증기금과 국민은행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에서 우대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증서비스의 제공 형태라 할 수 있다.

민간 금융투자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녹색금융상품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펀드명에 녹색, 재생, 태양, 대체, SRI, WATER, GREEN, 그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펀드를 합계할 경우 녹색펀드의 규모는 2009년 9월말 1조 703억원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1조 1,90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카드사의 녹색금융상품은 주로 환경관련 단체에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이다. 그 외 여신금융사는 에너지 절감시설, 그린홈,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의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규모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 4〉 은행권 녹색금융상품(기업여신) 실적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구분	상품명	특징	'09. 9월말	'09. 12월말	'10. 2월말
산은	기업여신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 지원분야 * 환경산업 * 신재생, 대체 에너지 *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이용합리화 등 - 우대내용 * 금리우대 : 원화 0.3%p(중소기업 0.5%p), 외화 0.15%p	7,215	7,387	7,687
농협중앙회	기업여신	녹색성장 NH푸드론	- 대출대상자 :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음식점,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자 - 금리우대(최고1.0%p) * 한식 세계화 관련 사업자, 지자체 인증 우수음식점, 농식품관련 인증 사업자 등 *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고객 등(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에 따른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가능)	319	719	747
농협중앙회	개인여신	녹색 마이너스통장	- 녹색체크인 참여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0.6%p) * 승용차 요일제, 탄소마일리지 참여 고객 등	117	191	215
신은	기업여신	신한솔라파워론	- 태양광발전소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전력판매대금으로 분할상환 - 대상은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이내	482	1,190	805
신은	기업여신	신한솔라파워론출시前 태양광발전 지원	- 신한솔라파워론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 상품출시 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2,146	2,146	2,146
신은	기업여신	신한신재생에너지대출	- 풍력, 연료전지,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696	696	696
신은	기업여신	신한녹색성장대출	- 녹색성장산업(그린에너지관련 업종 및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상 -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적용 - 대출기간 : 최장 15년 이하	신규	385	448

34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신 은 한 행	개 여 인 신	신한 MyCar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차구입 목적으로 매매계약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가액 범위 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li> <li>- 그린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구입 時 10bps 금리우대</li> </ul>	-	-	-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우리 그린 솔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산업단계별 패키지 금융지원, 미래성장 유망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상품</li> <li>- 가입대상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력 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조합 포함)</li> </ul>	551	552	620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우리 로봇시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로봇산업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기술보증 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대상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li> <li>-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다양화, 금리우대와 신용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기술평가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li> </ul>	19	19	19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우리 LED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 추천을 받은 LED 기업에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10%까지 확대해 최대 80%~85%까지 적용</li> <li>- R&amp;D기업과 제조업, 무역업, 신용보증서 발급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3억원까지 담보없이 운전자금을 지원</li> </ul>	574	203	199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그린 파트너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정 17개 녹색성장산업에 속한 기업 중 은행이 지정한 은행 내부신용 등급 이상 해당 기업(주거래업체)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협력기업 대상</li> <li>- 협력기업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li> </ul>	150	150	150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우리 RFID/USN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RFID/USN협회 회원사 또는 관련 업종 영위 사업자</li> <li>- RFID/USN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대상</li> <li>- 시설자금대출 한도를 80%~85%로 확대적용</li> <li>- 직접장 금리우대전결권, 대출관련비용 우대 제도 운용</li> <li>*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무선식별기술)</li> <li>*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첨단 지능형 네트워크)</li> </ul>	10	9	9

우 은	리 행	기 여	업 신	우리 사랑 녹색기업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 사업 중 환경마크 인증기업, ISO14001 (환경경영)인증,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폐기물 재활용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업, 기타 환경관련 인증서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li> <li>- 시설자금대출 한도 우대적용(80%~85%)</li> <li>- 지점장금리우대 전결권, 대출관련비용 우대제도 운용</li> </ul>	25	384	420
S 제 은	C 일 행	기 여	업 신	Green Growth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친환경상품(친환경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제조기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기업)</li> <li>- CG 9등급 이상 기업으로 일반대출, 무역어음대출, 할인어음 취급 시 대출금리 최고 연 0.3% 우대</li> </ul>	0	0	0
하 은	나 행	가 여	계 신	- 0.3°C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약 / 친환경 생활태도 실천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 -0.3% 우대 (대상고객 : 저공해자동차보유자/전기/가스/수도 절약자/경차보유자/대중교통이용자/이메일청구서 사용자/무통장사용자 등)</li> </ul>	409	525	595
하 은	나 행	기 여	업 신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대출 (솔라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완공 및 상업운전 개시 후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15년간 구매하는 전력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li> </ul>	1,820	1,980	1,985
국 은	민 행	기 여	업 신	KB GreenGrowth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산업 대상 여신금리 우대, 대출이익의 0.5% 발전기금 기부(지원대상 : 16,742개)</li> </ul>	2,269	2,543	2,603
기 은	업 행	기 여	업 신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제한없이 전기발전 사업허가를 받고 상업용 목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려는 자에게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설비자금 지원</li> <li>-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 자동상환토록 함.</li> </ul>	521	707	804
기 은	업 행	기 여	업 신	녹색성장 기업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산업, 환경마크인증기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 전결권을 완화하여 금융지원하고 대출금액 1만 원당 1포인트(1원)을 녹색성장 관련 단체 기부</li> </ul>	9,153	11,654	14,950
기 은	업 행	기 여	업 신	녹색설비 브릿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대기업의 녹색설비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하고 대출금은 대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회수하여 투자확대 및 녹색산업 육성</li> </ul>	94	139	142

36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외 은 환 행	기 여 업 신	신성장기업 파트너론 (녹색기업 파트너론)	- 2009.2.12, 정부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분 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신용보증서담보부대출(핵심분야 : 수출, 녹 색성장, 우수기술, 창업기업) - 운전자금, 시설자금 모두 가능	232	263	263
외 은 환 행	기 여 업 신	준공영제CNG 버스자금대출	-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내 시내버스업체의 버스 구매자금대출	1	1,2	1
외 은 환 행	기 여 업 신	마이솔라 파트너론	- 대출기간 15년 이내, 1년 이내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 단위로 대출원금 균등분할방식 상환 - 원화대출, 외화대출 모두 가능	16	179	179
한 씨 은 국 티 행	기 여 업 신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대출	- 녹색성장관련기업(관련산업 : 풍력발전, 태양광, LED)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일반 여신 공여를 통해 기업의 녹색성장을 지원(녹색성장 관련 기업 앞 공여증인 운전/시설자금 대출임.)	2,736	2,387	2,226
한 국 수 출 입 은 행	기업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스	수출자금, 해투자금, 수입자금	- 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의 상품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자금, 해투자금, 수입자금 적절히 Mix하여 기업여신 또는 PF방식의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10,771	13,311	15,457
대 은 구 행	기 여 업 신	DGB CNG버스 구입자금대출	CNG 버스 대체 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금융상품 으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시내버스업체 중 신용6등 급 이상 또는 소호등급 7등급 이상인 업체 : 금리감면	0	4	4
대 은 구 행	기 여 업 신	DGB 그린론	친환경상품 제조기업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기업 ISO14001 시리즈 인증을 취득한 기업, LED기업, 친환경우수기업 평가표 60점 이상 득한 기업인 경우 - 우대사항(금리 감면 1.5%~2.5%, 신용평가 완화, 외국환수수료 감면)	6	19	19
부 은 산 행	기 여 업 신	BS CNG버스 구입자금대출	- 부산시 시내버스회사 대상 배출가스 저감용 압 축천연가스(CNG)버스 구입자금대출	1	3	3
부 은 산 행	기 여 업 신	BS클린 녹색기업 우대대출	- “클린녹색 정기예금·적금” 판매를 통하여 조성 된 재원으로 지역 내 친환경 또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신규유치거래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절약 전문가, ISO14001시리즈 인증 취득업체는 「BS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출」 한도배정 시 우선 배정, 본부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으로서 사업성 또는 기술력 우수기업은 여신 심사 시 우대하여 중점지원,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 금리에서 최대 1.0% 범위 내 감면	268	410	396

II. 국내의 녹색금융상품 현황 37

광 은	주 행	기 여	업 신	Hi-Green Solar Loan	-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완공 및 상업운전개시 후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정부가 15년 또는 20년간 구매하는 전력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	218	245	241
광 은	주 행	기 여	업 신	Hi-Success Loan	-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채택된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여 지원하는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이 INNO-BIZ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요 자금 비율과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용상품임.	54	60	60
광 은	주 행	기 여	업 신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취득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로 소요자금 지원	2,275	2,275	2,275
광 은	주 행	기 여	업 신	KJB GREEN LOAN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영산강프로젝트 수주기업, 녹색산업관련 보증서 발급기업, CNG 버스 구입기업, 친환경제품 제조 및 유통기업 등 지원, 금리우대	104	140	157
전 은	복 행	기 여	업 신	JB Green Biz Loan	녹색성장기업 및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 대상 : 그린에너지산업(신재생에너지 등 포함), 친환경 제조업체, IISO14001시리즈 인증업체, 녹색제품구매협약업체, 신보기보특별협약에 따른 녹색성장관련 보증업체 등 - 기타 : 금리추가감면, 여신심사 및 전결권 우대,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등 수수료 우대	0	-	3
경 은	남 행	기 여	업 신	하이테크-론	- 바이오, 지능형 홈 등 경남지역 4대 전략업종, 이노비즈 인증기업, 친환경에너지 관련업종 영위 중소기업에게 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대출 상품 - 취급된 대출금액의 0.1%를 “하이테크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경상남도 4대 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관련 영위 중소기업을 지원	396	396	362
합 계						43,648	51,272	56,886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표 5〉 은행권 녹색금융상품(예·적금)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구분	상품명	특징	'09.9월말	'09.12월말	'10.2월말
농협중앙회	예적금	초록세상 적금	- 녹색캠페인 참여 고객 등에 금리우대(최고 0.6%p) 적용 *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이용고객 등	2,521	5,374	7,679
수협중앙회	예적금	그린플러스 예금	- 탄소 마일리지제도 참여, 어촌사랑 운동 참여 고객에게 금리 우대 * 최고 0.6%p	2,221	1,481	1,481
신한은행	예적금	신한희망 에너지적금	에너지사랑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우대 이율 제공 - 가전 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여름·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에서 실천하겠다고 서약하면 0.3(1년제)~0.5(3년제)%포인트의 금리 혜택	7,463	4,597	3,152
우리은행	예적금	저탄소 녹색통장	-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50%를 서울시에 출연, 서울시는 이를 '탄소마일리지제'의 재원으로 활용 - 통장 가입자는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수수료 50% 면제, 서울시가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 마일리지제 참여 시 수수료 전액 면제	17,843	11,923	7,578
우리은행	예적금	자전거 정기예금	- 자전거 상해보험 무료 가입, 추첨을 통해 자전거 100대 증정 - 녹색생활 실천고객 최대 0.3% 우대금리 제공 - 통근·통학에 자전거 이용고객,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 탄소마일리지제 참여고객에게 각 0.1%씩 우대금리 제공 - 상품판매 순이익의 10%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단체에 기부	11,529	22,961	22,546
SC제일은행	예적금	온라인퍼스트 정기예금 (e-푸름이벤트)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가입으로 각종 종이서류 및 통장발행을 없앴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신규고객 대상으로 매월 1명씩 추첨하여 자전거경품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녹색 금융에 참여토록 함.	34	168	168
하나은행	예적금	하나S라인 적금(Green)	- 기존 하나 S-라인 적금을 리뉴얼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규고객에 대해 자전거보험 무상가입 및 재활용종이를 활용한 어린이 환경노트 제공	8,046	6,927	5,772
국민은행	예적금	GreenGrowth-공동구매 정기예금	- 인터넷전용, 지급이자(세진)의 1% 녹색성장관련단체에 기부하는 공익형 녹색금융상품	1,401	2,088	2,277
국민은행	예적금	친환경사업자 우대적금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 종업원 급여이체 기업 등에게 다양한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적금	2,127	3,059	3,288

			관계대출, 시에 대출금리 할인 등의 대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출금 상환이나 사업장 구입(임차)을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이율을 적용하는 기업 전용 적립식 예금			
외 은 환 행	예 금	그린 코리보연동 정기예금	- 코리보연동 정기예금 : 녹색성장산업 관련 고객 0.3% 금리 추가 제공		2,831	4,001
기 은 업 행	예 금 적	녹색성장 예금	- 정기예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번 신규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하고, 가입고객에 0.1~0.2%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판매실적 1만원당 10포인트(10원)을 녹색성장 관련 단체 기부	14,978	15,641	15,435
기 은 업 행	예 금 적	환경사랑 통장	-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0.35% 포인트, 0.2%포인트,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 - 실적에 따라 0.1%의 환경문화발전기금을 출연	8,009	7,232	6,942
한 씨 은 행	예 금	씨티 EMA예금	종이통장 발급방식이 아닌 전자방식 통장 -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제공 - 개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가입 가능	11,689	9,427	9,657
대 은 구 행	적 금 예	친환경 녹색 예적금	- 친환경 녹색예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승용차 요일제, 저공해자동차 등 친환경 참여고객에 대해 최대 0.4% 우대금리 적용	520	1,869	2,994
부 은 산 행	예 금 적	클린녹색 정기예금	- 자전거타기 서약고객 우대, 친환경 차량소유 고객 우대,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우대, 자전거 상해보험 무료 가입, 수수료 면제, 녹색성장 친환경사업 등에 기부	604	551	765
부 은 산 행	예 금 적	클린녹색 적금	- 자전거타기 서약고객 우대, 친환경 차량소유 고객 우대, 탄소포인트제 가입고객 우대, 자전거상해보험 무료 가입, 수수료면제, 녹색성장 친환경사업 등에 기부	547	747	848
광 은 주 행		그린스타트 예금	- 탄소그린카드 신규(전환) 가입/이용고객 우대,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보유고객 우대, CO <sub>2</sub> 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서약서 작성 고객 우대	962	913	927
광 은 주 행	적 금	KJB Green-Biz 적금	- 녹색성장관련 기업우대 이율 적용 - 통장 미사용 고객우대 이율 적용 - 매년 10백만원씩 3년간 녹색사업 출연	0	9	18
제 은 주 행		저탄소 프리미적금		12.6	26	29
전 은 복 행	예 금	에향전복 예금	- 전라북도 내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업 (예 : 전주시/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 가입실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지급	1,555	1,704	1,749
합 계				92,062	99,528	97,306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표 6〉 은행권 녹색금융상품(보험, 카드, 보증 등) 실적현황

은행명	구분	상품명	특징	'09. 9월말	'09. 12월말	'10. 2월말
농협중앙회	보험	친환경 농·축산물 안심보장 공제	- 가입대상 : 친환경 농축산물생산, 유통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자체 - 보장내용 : 친환경 농축산물의 잔류 농약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등 * 일종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계약액 : 30백만원	-	-
농협중앙회	카드	NH 에코카드	- 국내신판 이용금액의 0.1% 기금조성(녹색성장 관련 공익사업 지원) - 생활에너지 공과금 캐시백 : 2~20천원 - 전농협판매장, 재활용·친환경매장이용금액 5% 할인 - 유기농레스토랑, 웰빙스포츠 등 할인	좌수 : 5,945건 이용액 : 618백만원	9,109좌 이용액 : 66억원	9,398좌 이용액 : 111억원
우은행	펀드투자	칸서스 태양광펀드	-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당행 주도로 펀드 설립 - 당행 300억원, 농협 300억원 투자약정(지분 각각 50% 소유) - 자산운용 : 칸서스자산운용(주) - 현재 태양광 발전소 8개 지분투자 실행 -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자금대출 147.8억원(당행에서 대출 실행)	218억원	218억원	436억원
우은행	원화출입 및 지분투자	울산시 자원회수시설 금융주선 및 투자	-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소각및매립시설설치등 - 사업방식 :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 투자규모 : 1,035억원 중 당행 152억원 투자	대출금 : 132억원 지분출자 : 20억원	대출금 : 132억원 지분출자 : 20억원	대출금 : 132억원 지분출자 : 20억원
SC제일은행	카드	The CJ 레포츠카드 -국내전용	- 전통 한지를 기존 카드 두께로 겹쳐 제작하여 소각 및 매립 시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카드 - 레포츠 및 레저용품 할인서비스	0	69좌	266좌
국민은행	카드	KB GreenGrowth Card	- 친환경제품 구매 시 탄소 캐쉬백 포인트 제공 0.1% 적립 - 자전거, 철도, 대중교통 이용 시 최고 10% 할인 - 친환경카드 자체 사용	11,500좌	33,795좌	43,492좌
국민은행	보험	녹색 자전거보험	- 자전거로 인한 상해 및 비용 손해를 저렴하게 보장하는 금융권 최초 개인용 자전거 보험 상품 (당행 단독 판매)		12,144건 4억 9천만원	12,261건 4억 9천만원

II. 국내의 녹색금융상품 현황 41

외 은 환 행	카 드	넘버엔 Epass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제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속파 고객들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All Day 캐쉬백카드</li> <li>- 에코프랜들리 패스 Epass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공해방지를 실천하게 함.</li> <li>- 대중교통(지하철/버스) 1회당 100점 적립(월 10,000점, 주말/공휴일 더블 포인트 적립(1일 3회까지))</li> </ul>		111,436좌	132,322좌
외 은 환 행	카 드	넘버엔 Wheelo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를 이용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라이더 고객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프리미엄카드</li> <li>- 자전거보험 무료가입 서비스</li> <li>- 삼천리자전거 최대 70만원 SAVE 및 10% 적립</li> <li>-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1만점 적립 (회당 100점)</li> </ul>		292좌	493좌
기 은 업 행	카 드	환경사랑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실적의 0.2%를 기부금으로 은행이 출연, 환경문화발전 사업에 이용</li> </ul>	533좌	546좌	734좌
기 은 업 행	카 드	(친환경) 효우에 기프트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소재를 천연소재인 옥수수전분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 적용하여 폐기 시 흙속에서 완전히 분해</li> </ul>	2,454좌	4,234좌	110,706좌
기 은 업 행	카 드	상쾌한 공기 Lohas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대기환경 청제휴-환경부) 국내신판 대금의 0.3% 기본캐쉬백 제공 및 추가캐쉬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캐쉬백 추가 제공 → 전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li> <li>· 0.5% 캐쉬백 추가 제공 → 대기환경개선 자발적 참여자</li> </ul> </li> <li>-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 시 1백원 할인(1일 1회, 월 20회)</li> <li>- 환경용품 등 친환경·건강관련 우대 할인서비스 제공</li> </ul>	1,390좌	9,856좌	14,440좌
기 은 업 행	투 신 상 품	녹색성장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이고 큰 성장이 기대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li> <li>- 업종대표 기업 중 그린에너지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대표주를 일정수준 편입하여 KOSPI와의 괴리를 최소화 추구</li> </ul>	9억원	11억원	13억원
대 은 구 행	카 드	DGB 그린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지자체와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한 CO<sub>2</sub>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마일리지 제공 및 적립된 마일리지로 친환경 제품 구매</li> </ul>	-	0	0

42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광 은	주 행	카 드	탄소 그린카드	- 카드발급 가정이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특별 포인트를 제공	7,587좌	8,208좌	8,215좌
경 은	남 행	카 드	창원시 자전거사랑 카드	-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저변확산을 위해 창원시와 제휴 발행하는 카드상품 - 창원시 시민공영 자전거 “누비자” 인증기능을 포함한 카드상품 - 저탄소녹색성장의 ‘에너지저소비산업진흥’을 통한 에너지비용 및 환경오염 감소 도모	회원수 : 5,696명	6,617좌	7,522좌
전 은	복 행	카 드	CO <sub>2</sub> 저감 녹색카드	- 탄소포인트제도 가입고객이 수송(자가용), 전기 부문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포인트를 적립	1,500좌	2,088좌	2,191좌
신 보 기	용 증 금	기 여 신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 - 보증금액 한도사정 시 우대 - 보증료 0.2%p 차감	19,082억원	26,240억원	30,496억원
신 보 기	용 증 금	기 여 신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자금을 대해 신용보증 - 보증료우대(0.2%p차감)	2,680억원	3,199억원	3,400억원
기 보 기	술 증 금	기 여 신	농협 녹색성장산업 협약보증	-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그린 에너지산업 영위기업 지원 - 지원금액 : 10억원 이내 -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 0.2% 감면	92억원	92억원	92억원
기 보 기	술 증 금	기 여 신	국민은행 녹색성장산업 협약보증	-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녹색 성장산업 영위 기업 지원 - 지원금액 : 100억원 이내 - 우대지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3%p 감면	3,800억원	5,181억원	5,311억원
기 보 기	술 증 금	기 여 신	로봇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로봇산업 영위기업 지원 - 기보의 기술사업 평가등급과 우리은행의 신용 평가 등급을 조합한 종합등급에 의해 차등화된 보증비율 적용(65%~95%) - 우대지원 : 보증료 0.2%p 감면	0	20억원	20억원
기 보 기	술 증 금	기 여 신	녹색설비 브릿지론	- 모기업*과 체결한 생산설비 계약을 근거로 협력업체에 대해 설비관련 원자재, 용역 등의 구매자금 지원 * 모기업 :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과 업무 협약 체결('09.6.17)	0	4억원	4억원
합 계					25,654억원	34,736억원	39,323억원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표 7〉 금융투자업 녹색금융상품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운용사명	2009년 9월말			2009년 12월말			2010년 2월말		
	펀드수	설정 원본	NAV	펀드수	설정 원본	NAV	펀드수	설정 원본	NAV
K B 자 산 운 용	1	970	989	1	957	975	1	946	975
K T B 자 산 운 용	-	-	-	1	360	360	1	524	524
N H - C A 자 산 운 용	12	4,304	4,165	11	4,212	4,157	11	4,227	4,124
대 신 투 신 운 용	1	140	126	2	207	198	2	196	182
동 양 투 신 운 용	1	215	212	2	314	320	2	315	307
드 립 자 산 운 용	1	170	195	1	170	199	1	170	201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	18	23	2	121	128	2	123	130
마 이 에 셋 자 산 운 용	1	164	165	1	164	171	1	164	175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2	1,074	1,124	2	1,081	1,142	2	1,094	1,167
미 래 에 셋 자 산 운 용	1	107	133	2	216	244	3	311	329
산 은 자 산 운 용	2	267	236	2	244	222	2	245	215
삼 성 투 신 운 용	1	87	90	3	280	286	3	275	273
신 영 자 산 운 용	1	7	8	1	7	8	1	7	8
신 한 B N P 파 리 바 자 산 운 용	2	848	702	2	746	627	2	676	541
아 이 엔 지 자 산 운 용	1	11	12	1	13	16	1	16	18
알 파 에 셋 자 산 운 용	1	130	130	1	130	130	1	130	132
와 이 즈 에 셋 자 산 운 용	1	179	193	1	172	172	1	172	175
우 리 자 산 운 용	1	181	181	1	167	170	1	159	151
유 리 자 산 운 용	-	-	-	1	20	21	1	20	20
칸 서 스 자 산 운 용	1	414	435	1	409	431	1	405	423
트 러 스 톤 자 산 운 용	1	4	5	1	8	10	1	10	12
피 닉 스 자 산 운 용	-	-	-	1	110	113	1	110	115
하 나 UBS 자 산 운 용	1	33	34	1	34	37	1	38	38
하 이 자 산 운 용	2	3	3	2	3	3	2	3	3
한 국 투 신 운 용	1	6	7	1	7	9	1	8	10
한 화 투 신 운 용	7	1,288	1,247	7	1,275	1,250	7	1,260	1,206
현 대 자 산 운 용	1	61	71	1	66	79	1	67	76
흥 국 투 신 운 용	1	21	30	3	231	234	3	234	233
합 계	46	10,703	10,516	56	11,725	11,715	57	11,906	11,763

주 : 1) 해외펀드 제외

2) 펀드명에 녹색, 재생, 태양, 대체, SRI, WATER, GREEN, 그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됨.

3) 펀드수는 모펀드, 클래스펀드 제외, 설정원본은 모펀드, 클래스운용 펀드 제외임.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표 8〉 여신금융사 녹색금융상품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금융기관명	구분	상품명	특징	'09. 9월말	'09. 12월말	'10. 2월말
신한카드	카드	환경사랑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 레이디, 2030카드 서비스 동일</li> <li>- 환경 인식 제고 및 환경운동의 활성화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로 환경운동연합과 제휴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li> <li>- 환경관련 신판 정상 입금액의 0.1%를 환경관련 단체에 기금으로 지급</li> <li>- 생태 관광 및 생태 기행 참가비 20% 할인, 환경 관련 서적 25~30% 할인, 환경 관련 전시회 무료입장권과 우대권 제공, 환경 관련 도서, 사진, 비디오, 슬라이드 대여 시 50% 할인 등</li> </ul>	실질회원 14,500명	실질회원 11,830명	실질회원 11,026명
		세계자연유산 I ♥ Jeju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신판 매출금액의 0.2%를 제주 세계 자연유산관리기금으로 기부</li> <li>- 제주도 12개 문화재 무료입장 서비스</li> </ul>	-	6,400매	8,300매
		삼성리필기프트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용 선불카드가 아닌 재활용 카드로 자원 낭비,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시한 무기명 충전형 선불카드</li> <li>- 추가구매로 인한 결제 및 배송기간 소요의 불편함 해소</li> <li>- 필요할 때마다 즉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월1회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자동 충전되는 방식 2가지로 나뉨.</li> </ul>	7,053매	8,466매	12,066매
		EBP(EcoBio Plastic)카드 한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카드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음.</li> <li>- 친환경카드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및 유독GAS 발생량이 합성수지(PVC, PET, PC 등)에 비해 60~70% 저감되며 연기발생이 없음.</li> <li>- 친환경카드는 폐기(매몰) 시 생분해(마그네슘, IC Chip, 홀로그램 등 제외)되며 자연으로 순환되는 신소재 카드</li> <li>- 국내의 최초상품화에 성공하여 환경 마크를 취득</li> </ul>	EBP카드: 2,500매  한지카드: 1,699매	EBP카드: 12,500매  한지카드: 2,788매	EBP카드: 12,500매  한지카드: 2,834매

산 은 캐 피 탈	여 신 금 용 사 (비카드)	ESCO대출 및 팩토링	- 에너지절감 시설보급을 위하여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절감된 에너지비용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상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ESCO기업(Energy Saving Company, 에너지절약투자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3,372	3,672	3,672
		산업은행 ESCO대출 및 팩토링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공사 수행 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 받지 못한 금액을 장기 저리 자금인 산업은행자금으로 연계 지원함. - ESCO대출 및 팩토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	333	333	333
		자체자금 팩토링	- ESCO 및 산업은행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당사 자금으로 지원함. - 상기 언급한 팩토링제도의 장점을 소액영역까지 확대함.	132	217	221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대출금	-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건축물에 LED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당 5억원 이내(사업금액의 80%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또한 팩토링제도와 함께 취급함으로써 ESCO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그리고 서울시 소재 민간 건축물로서 리모델링과 함께 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당 10억원 이내(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로 제한)에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9	13	30
아 주 캐 피 탈	신재생에너지 내구재 활부	내게 그린 (GREEN) 활부	- 친환경하이브리드(hybrid)자동차 구입 시 할부금리를 다른 신차보다 3%포인트 정도 낮은 연 6%로 적용 - 취급수수료 50% 할인	0.6	0.9	0.9
		신재생에너지 내구재 활부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할부금융 상품 제공	0	0	0

46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현 대 캐 피 탈	아반떼 하이브리드론	-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을 위해 3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자금대출 시, 6%의 특별 저금리 운영	102	124	124
	포르테 하이브리드론	-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을 위해 3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자금대출 시, 6%의 특별저금리 운영			
	포르테 하이브리드 전용 인도금 무이자유예 할부	-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을 36개월로 할부 구입 시, 300만원 무이자 유예 할부(만기일 유예 원금 일시상환, 정상할부금-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600만원 이상 대출 시)	17	26	27
K T 캐 피 탈	여 신 금융사 (비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그린 IT 등) 분야 투자를 통해 산업 활성화 기여 및 수익 고양</li> <li>- "KT그린IT경영전략"과의 접목 및 시너지 도모</li> <li>- 결성일 : 2009년9월30일(운용기간 7년, 관리 보수 : 연7.5억원)</li> <li>- 결성규모 : 310억원 (주요 출자자 : KT, 경기도, 국민은행, 신한 캐피탈, LIG손해보험)</li> <li>- 당사출자금액 : 50억원</li> <li>- KT유관부서 : 전략투자담당</li> </ul>	0	50	50
	IBK-AUTUS 녹색성장 P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전문금융계열사를 집중관리 및 관리 효율화 도모</li> <li>- [경기-KT 녹색성장 투자조합]과의 시너지 도모</li> <li>- 출자관리 대상 : KT출자 약정액 200억원 ('09년 11월 결성, 전체 PEF 규모 1,490억원)</li> <li>- 출자관리 주요내용 : 투자 의사 결정 참여(실질적 Veto권 확보, 투자/회수 시 우선권 확보 GP (IBK 및 Autus)와 투자업무협력관계 구축 (공동펀드 조성, 제반보수 공유(2년 간 자문 수수료 연 2억원 수취)</li> </ul>	0	0	0
	대우 Green-Korea SPAC 발기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기인 참여 SPAC : 대우증권 SPAC(국내 1호 SPAC, 2억원 출자), 우리투자증권 SPAC(5억원 출자), 동양증권증권 SPAC(5억원 출자)</li> <li>- 참여효과 : 향후 활성화 예상되는 SPAC시장 진입기반 마련</li> </ul>	0	2	2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 3. 국내의 녹색금융기반에 대한 비교·평가 및 시사점

#### 1) 국내의 녹색금융기반 비교·평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녹색금융상품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유럽국들과 같은 녹색분야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녹색금융 선진국인 유럽국가 등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규모 등의 면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녹색금융 전문 인력의 부족, 인프라 부족,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여겨진다.

유병규 외(2009)는 녹색금융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녹색금융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녹색 관련 금융발달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2009년 2/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펀드 자산규모는 전 세계 펀드 자산규모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규모는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의 약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출시한 녹색 금융상품은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 규모도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금융상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프로젝트 및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아직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업금융상품을 개발하기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에 비해 녹색 소매금융상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해외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택 및 상가,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는 녹색 소매금융상품이 다양하고 이러한 상품은 우대금리 제공, 친환경 단체에 대한 기부, 특정 녹색예금상품의 경우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적금, 카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금리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기초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넷째, 해외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이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러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해외 금융회사들은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탄소시장 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와 같은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회사들은 녹색 인덱스를 개발하여 금융 지원에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덱스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에는 SRI지수로 규모가 큰 2,500개 기업 중 경제·환경·사회적 기준에 따른 상위 10%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지수인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가 있다. 영국에는 SRI지수로서 'FTSE4Good'이 있다. 이 외에도 S&P는 2007년 8월 클린에너지 지수를 개발하였고, HSBC는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를 산출하여 환경상품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9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인 SRI지수를 개발하였고 향후 상장된 우수 녹색기업으로 구성된 녹색산업주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 2) 시사점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서는 녹색금융시장 발전단계의 초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여신을 공급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낮고 수익성 전망이 양호한 일부 녹색기업에 대해서만 자발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다양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부문에까지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민간부문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녹색산업 분야와 그렇지 않은 녹색산업 분야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지원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자금이 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녹색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고위험-고수익 자금이 녹색산업에 효율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비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녹색기업의 경우 초기 상용화 단계 직전에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에서는 자금회수가 코스닥시장 IPO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태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현재로서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측정된 녹색금융상품의 규모 또한 다소 자의적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금융회사들이 녹색인증된 기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 대상 금융 신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녹색금융상품의 판매실적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Ⅲ.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 1.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녹색경영은 해당 기업의 업종 및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영이란 특정 기업이 자신의 업종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는 행위,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행위,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친환경기업을 지원(또는 투자)하거나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보험사의 경우 녹색경영이란 본연의 핵심상품(업무) 부문에서 소비자의 친환경 행위를 유도하거나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영역에의 진출, 보험사의 일상적 비즈니스 및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친환경행위 실천,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활동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2. 보험사 녹색경영의 필요성

보험사를 비롯한 전 세계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녹색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등 금융회사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사에게 다양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 동력 및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녹색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소들이 보험사의 녹색 보험상품 및 녹색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비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금융권의 녹색경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보험산업은 2007년 기준으로 보험료수입에서 약 4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 수조 달러의 투자수입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수입 규모 측면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전 세계 경제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험산업이 본연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상품 및 사업,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행위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것은 실로 어느 산업에서보다도 그 영향 및 의미가 지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부응하여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녹색보험상품의 개발 및 출시, 그리고 녹색사업의 실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권에서와 같이 보험사의 녹색경영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도, 캐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경영행위 등을 충분히 전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는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보험사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이처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비중 측면을 고려한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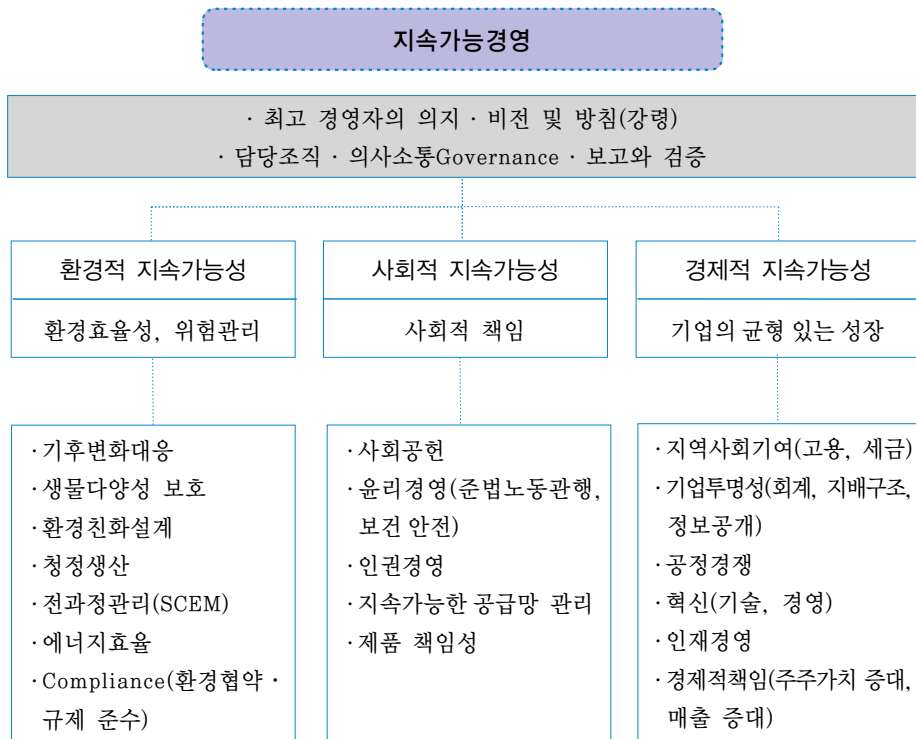
10) 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April 2009 및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7, Sigma, 2008 참조

11) Kovacs, P., "Homeowners and Natural Hazards", Canadian Underwriter, January 2005.

입장에서도 경쟁력 제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최근 들어 국내 보험산업은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서 모두 한계를 보이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녹색경영, 특히 녹색보험은 보험사에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경영과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욱(2007)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환경·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하여 성과를 일구어 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성장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지속가능경영의 구조



자료 : 정재욱, “지속가능경영과 보험산업의 실천과제”,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7.4.

이와 관련, UNEP Finance Initiative(2007b)는 보험산업의 경우 이러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슈를 크게 다음의 아홉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소액보험(microinsurance), 평생소득(lifelong income), 건강(health), 인적재난위험(emerging manmade risks), 환경배상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natural resources(자연자원), recycling(재생), internal efficiency(내적효율). 이 중 상당 부분이 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결국, 일반 다른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있어서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친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해당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성장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향후 4년간(2009년~2012년) 약 3,780억원 규모의 손해보험료 신규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2)</sup>

또한 녹색경영은 손해율 감소를 통한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야말로 각종 위험의 담보·보장 등을 통해 이러한 기후변화위험 등과 관련된 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고, 그 파급영향이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보험사가 선제적·적극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사회기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 및 수익성 제고로 직결되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요 선진국의 많은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 교육 및 예방활동, 홍보활동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러한 수익성 제고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경영은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

12) 보험개발원,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손해보험수요 추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2009.8.26.

험산업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권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보험산업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녹색 보험상품 개발 및 녹색사업 전개 등 녹색경영의 실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지구 환경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보험사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설문조사<sup>13)</sup>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86.2%가 보험사의 사회공헌 및 책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국민 3명 중 2명(66.3%)은 향후 보험상품 구입 시 보험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녹색경영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자리잡아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내 보험사들도 녹색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3. 국내 보험사 녹색경영 현황

국내 보험권의 경우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녹색 어린이보험'과 '녹색성장 재간접형펀드'를 운용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있다.

13) 안철경 외,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09.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 Green’은 자전거교통재해에 특화된 보장을 하면서 초회보험료의 1%를 환경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녹색금융을 수행하고 있다. 카디프생명의 ‘그랑프리변액유니버설보험’은 재생·대체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자원관리,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환경관련 서비스 등에 분산 투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손해보험과 관련한 녹색금융상품은 자전거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권에서도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표 9〉 생명보험 녹색금융상품 실적

금융 기관명	상품명	특징	실적		
			'09.9월	'09.12월	'10.2월
신한생명	(무)신한아이 사랑보험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보험 최초 녹색어린이 보험</li> <li>·자전거교통재해 특화 고액 보장</li> <li>·공익성을 추구하는 어린이보험 (초회보험료 1% 환경관련 단체 기부)</li> <li>·업계 최초 치과통원비 보장</li> <li>·환경관련 질병 특화보장</li> <li>·각종사고 및 질병 종합보장 (스쿨존 등 보험사각지대 특화보장)</li> </ul>	-	2억2,942만원 (8,493건)	2억4,454만원 (9,068건)
카디프생명	(무)그랑프리변액 유니버설보험 (적립형/일시납) * 녹색성장 재간접형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투자 섹터인 환경산업에 분산 투자 : 미래의 성장 동력인 재생 및 대체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자원관리, 오염관리, 폐기 물 관리, 환경관련 서비스에 분산 투자</li> </ul>	-	9,200만원	1억4,100만원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표 10〉 손해보험 녹색금융상품 실적

(단위 : 천원)

금융 기관명	상품명	특징	실적		
			'09.4월 ~'09.9월	'09.4월 ~'09.12월	'09.4월 ~'10.2월
메리츠	자전거종합보험	·자전거로 인한 상해 및 배상책임손해 보상	355	454	467
삼성	삼성명품녹색 자전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방카슈랑스 상품	458,595	489,279	495,218
현대	녹색사랑자전거 상해보험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 입원일당, 벌금 및 골절수술비용 담보	821	980	980
	(무)하이라이프 하이콜 ECO보험	·TM 판매 상품 ·자전거 이용중 발생위험 보장특약 가입 가능 * 자전거 탑승중 상해 등 5개 특약 ·녹색증권·녹색약관 발급 선택 시 보험료 할인 ·자전거 관련특약 가입 시 보험료 할인	1,682	42,788	76,637
	(무)하이라이프 파워 ECO운전자보험	·자전거 이용중 발생위험 보장특약 가입 가능 * 자전거 탑승중 상해 등 5개 특약 ·녹색증권·녹색약관 발급 선택 시 보험료 할인 ·자전거 관련특약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4,935,488	14,167,836
L I G	친환경농산물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보상	228,545	275,942	275,942
	LIG자전거보험	·자전거 관련 위험 보장	129,560	207,182	220,200
동부	자전거상해보험	·아래와 같은 사고를 보상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14,218	14,766	14,766

자료 : 녹색금융협의회

한편, 최근 들어 일부 국내 보험사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등의 차원에서 녹색경영의 또 다른 형태인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전자문서 발급, 관련 이벤트 기획(소비자 대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손보사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종이사용 억제,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84톤 감축하고 1억 8,000여 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절약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절감되는 사업비는 환경보호 산업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각종 녹색운동 단체와 환경사업 등에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국 보험사의 녹색보험상품 및 녹색사업을 비롯한 녹색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의 IV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IV. 주요국 보험사의 녹색경영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가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방식은 크게 환경 보호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상품, 즉 녹색보험(상품)을 개발·출시하는 것과 일상 비즈니스에 환경요인을 접목시키고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예방 사업, 투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전개하는 소위 녹색사업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녹색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 위험관리(예방사업) 측면, 자산운용(투자업무) 측면, 교육·캠페인 측면 등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보험사가 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녹색보험

녹색보험상품은 크게 상품자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여 디자인되어 있는 보험상품, 소위 환경친화적 보험상품, 그리고 녹색 산업을 보험의 기능을 통해 지원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정의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본 절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기로 한다.

## 1)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pay-as-you-drive auto insurance)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보험료 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유류 절감 등이 있는데, 동 상품이 녹색보험상품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대효과 중 특히, 자동차보험료가 운행거리에 연동됨으로 인해 자동차운행 감축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연령, 성별, 사고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행거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연간 마일리지 계획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 보험료가 부과된 후, 실제 운행거리가 이를 초과할 시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반대의 경우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유럽 등의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시장규모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크지 않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과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07년 약 1,864만 유로에 불과하였던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시장규모가 2015년에는 1억 4,181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대수도 2015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4)</sup>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운행거리 감소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특히 평상 시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의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 시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아야기되는 불공정성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운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자동차사고율 또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운행거리가 적은 보험가입자가 운행거리가 많은 가입자의 사고 및 이에 따른 손해를 보조(subsidize)해 주는 양상이었다.

Brookings Institution의 2008년 연구결과에<sup>15)</sup> 따르면, 실제로도 운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자동차사고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운행거리가 2만마일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5천마일인 운전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가구의 2/3 정도가 자동차 1대당 약 270 달러 정도의 보험료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자동차 운행거리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약 25% 정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연소득이 1만

14) Frost & Sullivan, "Usage-Based Insurance", 2008.

15) Bordoff, J. and Noel, P., "Pay-As-You-Drive Auto insurance: A Simple Way to Reduce Driving Related-Harms and Increase Equ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July 2008.

2,500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가구의 경우 동 제도의 시행으로 연소득 대비 2~8% 정도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에 따른 또 다른 효과로 자동차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유류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 발생이 기대된다.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대수가 줄게 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사고의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러한 자동차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유발효과가 각각 342억 달러,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대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유류가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되는데, 관련된 기대 유발효과가 각각 58억 달러, 5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11〉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유발효과

(단위 : 억 달러)

	자동차사고 감 소	교통체증 완 화	대기오염 감 소	유류 절감	합 계
유발효과액	342	133	58	56	589

자료 : Bordoff, J. and Noel, P., Pay-As-You-Drive Auto insurance: A Simple Way to Reduce Driving Related - Harms and Increase Equ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July 2008.

#### 나. 상품 사례<sup>16)</sup>

미국의 경우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을 출시한 대표적 보험사로 Progressive사,

16) 기승도 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10.1, 한상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가격정책 개선방안 :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0.1 등을 참조

GMAC사 등을 들 수 있다. Progressive사의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상품인 'Myrate'는 운전거리, 운전시간대, 운전방식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자는 소형무선장치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갱신 시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은 특정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연간 주행거리가 9,600km 이하인 경우에 기존 자동차보험료의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프랑스의 경우도 특정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시판되고 있고, 보험가입자의 연간 주행거리가 4,000km 이하이면 기존 보험료의 최대 4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실제 운행거리가 사전에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약정한 거리보다 실제 운행거리가 많으면 추가 거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불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호주의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상품은 차량에 GPS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주행기록계에 나타나는 주행거리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 2)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nnex I 국가의 기업들은 탄소 감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투자펀드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소저감 의무를 가진 기업

과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배출권이 프로젝트로부터 제대로 인도(delivery)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technological performance risk), 신용리스크(credit risk),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 가격 리스크(pricing risk) 등과 같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요인에 의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탄소배출권을 창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sup>17)</sup>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동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이 예상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신용리스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인도(delivery)하기 전에 파산하는 리스크를 말하고, 정치적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탄소배출권 인도를 못하도록 하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인수(take over)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만약 탄소배출권이 프로젝트로부터 인도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이를 대체해야 하는데, 현물시장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프로젝트 계약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가 가격 리스크이다.

## 나. 상품사례

### (1) 탄소배출권 인도 보험(carbon credit delivery insurance)

CHARTIS는 가스배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가스유출(leakage)을 줄여 탄소

---

17)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비의무감축국에서 시행하거나 또는 비의무감축국이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CDM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s)이라 함.

배출권 CER을 획득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동 펀드는 향후 7년간 CER을 획득하여 탄소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유회사(oil company)에 선도계약(forward) 형태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요인으로 탄소배출권이 생성되지 않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이 발생하지 않아 인도(delivery)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선도계약으로 인해 인도되지 않은 탄소배출권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손실규모는 탄소배출권 현물시장 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액이다. 탄소배출권 인도 보험은 탄소배출권이 인도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분만큼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상품은 선도계약 전체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데 탄소배출권 인도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선도계약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도위험을 없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 (2)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for carbon credit projects)

스위스 Zurich의 보험상품은 투자자가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데 동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가의 정부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리스크를 헤지하는 상품이다.

### 3)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green upgrade coverage)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sup>18)</sup>

미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39% 정도가 이러한 건물에서 발생하고<sup>19)</sup>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문화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에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Chubb 보험사가 소비자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4 이상(28%)은 현재의 경제 환경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집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 및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택보유자들의 의식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아울러 친환경적 상품의 이용이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도 깨닫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1993년엔 친환경건축 인증기관인 'US Green Building Council'이 발족되었고 최근 들어 친환경 또는 녹색건축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녹색건축시장은 2005년 70억 달러에서 2007년 120억 달러, 2010년엔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새로운 상업빌딩의 10%가 녹색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사가 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오고 있는데, 1994년

18) 유진아, "미국 및 네덜란드 연기금의 녹색금융 참여사례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10.12, [www.firemansfund.com](http://www.firemansfund.com), [www.chubb.com](http://www.chubb.com) 등을 참조

19) US Green Building Council, Annual Report, 2008.

에는 에너지관리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년에 걸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측정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정책들과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험사들은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 특약(green upgrade coverage)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련 녹색보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동 상품에서는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에서 화재나 여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친환경자재를 기준으로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준다. 이는 건물소유주들로 하여금 친환경자재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동 상품은 친환경 건축물(그린빌딩)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냉·난방 효율을 위한 단열 강화 자재,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구(LED) 등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준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공사비의 2~10%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기 때문에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sup>20)</sup>

이처럼 보험상품의 지원을 통하여 건축물에 친환경자재 등의 활용이 많아질 경우 지구환경보호에 적잖은 실질적인 기여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Green Building Council'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에너지를 40%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배관과 욕실 구조물, 가뭄에 내성있는 배관(drought-tolerant plumbing) 및 물 절약 관개 수도 시스템 등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평균 50%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의 재건축 시 무해 재료 또는 친환경자재의 사용은 외부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내부 공기의 오염을 줄여주며 신선한 공기를 가져다주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분출시켜 주는 자연적 환기장치 역할을 하여주고 대기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한편 환경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주택소유자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20) 금융감독원,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09.4.14.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과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각종 환급과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대되고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가시화되며,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 시 주어지는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sup>21)</sup>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보험상품의 시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보험사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구체적인 상품으로서는 미국 Lexington사의 'Upgrade to Green Residential'과 FFIC(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사가 판매하는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을 들 수 있다.

## 나. 상품사례

### (1) Lexington사의 'Upgrade to Green Residential'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그룹 계열의 Lexington 보험사는 동부 해안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Upgrade to Green Residential'이라는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2008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동 상품은 주택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원하거나 환경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Upgrade to Green Residential' 상품은 주택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손실되었을 때 에너지 효율성, 물 사용의

21)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녹색보험 도입방안, 2009.4.1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공동의 그린(Green)빌딩 인증을 받을 경우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효율성, 내부 공기 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영역에 중점을 두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주거와 관련하여 보다 향상된 이익을 제공하여 준다.

첫째, 에너지 효율성의 경우 'Upgrade to Green Residential'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가 재해 등으로 주택 내 설치물에 손실을 입게 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Energy Star제품'<sup>22)</su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효율 상품으로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 준다. 예를 들어, 조명, 전기제품, 난방 및 냉방시스템, 가전제품, 창문 등의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가정 내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낮은 유속의 샤워기, 세면대, 변기 등과 관련된 제품을 개선·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급하여 준다. 셋째, 주택소유자가 재해 등으로 전기냉각장치, 페인트 및 코팅제품, 가정용 청소제품, 음식포장 용품, 사무용품 등과 관련된 손실을 입게 되면 또 다른 친환경 표준마크인 'Green Seal'<sup>23)</su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개선·복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넷째, 주택(지붕, 바닥, 벽 등)이 재해 등의 손실로 파손되고, 이를 복구 시 재활용이 가능한 내용물을 포함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 준다.

## (2) Fireman's Fund사의 Homeowner Insurance Policy

미국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사도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에 손해복구비용 산정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인 'Green Upgrade Coverage'

---

22) 시장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 중 하나임을 미국 에너지성(U.S. Department of Energy)과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증명하는 제품

23) 전기냉각장치, 페인트 및 코팅제품, 가정용 청소제품, 음식포장, 사무용품 등과 관련된 친환경 인증제도로써 비영리 독립기관인 Green Seal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에 의해 정해진 에코라벨링을 준수하고 환경 표준을 설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축물의 손해복구와 관련된 소위 '녹색 개선'에는 손상된 자재와 장비를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품질 기준에 준수될 수 있도록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의 디자인과 시공을 돕는 친환경 건축인증 시스템(LEED)으로 공인된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액도 제공된다. 또한 Lexington사에서와 같이 'Energy Star'제품으로 인증 받았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제품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급해 준다. 이 새로운 보상에 대한 연간 보험료 비용은 보상되는 보험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험금액 100만 달러 기준으로 70달러 정도이다. 만약 주택에 총 손실이 발생한다면, 보험가입자의 주택이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환경 건축인증 시스템(LEED)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준다.

〈표 12〉 Green Upgrade Coverage의 보상범위 및 연간 보험료

보상되는 가치액(보상범위)	연간 보험료 비용
< \$30,000	\$25(최소금액)
\$1million	\$70
\$2.5million	\$175
\$5million	\$350
\$8.6million+	\$600(최대비용)

### (3) 기타

Farmers사의 'Eco-rebuild' 상품은 손실된 자산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여주는 주택보유종합보험의 특약상품으로서, 해당 주택보유종합보험 보험료의

2% 정도만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최대 25,000 달러까지 에너지효율 마크인 'Energy Star' 인증의 자격을 갖춘 주택으로 개선하고 재활용가능한 자재로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또한 대체 전력 발생 장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동 상품은 2009년 4월에 Washington주 소비자들에게 시판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25개주에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ubb사의 'Green Wise Upgrade' coverage option은 이미 녹색인증을 받은 주택을 소유한 고객이 가장 최신 인증 기준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보상범위가 단지 친환경 건축인증 시스템(LEED)기준과 'Energy Star' 인증을 기반으로 한 상품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적·지역적 녹색 기준까지 수용하고 있다. 주택의 태양, 바람, 지열에 관한 전력 발생 시스템이 수리되는 동안 공익 설비로부터 전력과 물을 구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 4) 녹색증권(green policy)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녹색증권(green policy)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보험회사는 일정 금액을 녹색성장사업 등에 기부하는 보험상품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종이 보험증권을 전자 메일로 대체하면 증권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일부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녹색사업이나 소방관서 등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경우 환경보호

를 위한 실천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함께 받도록 하여 녹색 성장사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녹색증권 발급은 해당 보험사의 친환경·녹색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상품사례

미국 Allstate사의 'Easy Pay Plan'은 동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월납보험료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송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최고 5%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사는 녹색사업지원재단 등에 10달러를 기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을 매달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간 25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state사의 'Easy Pay Plan'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콜로라도,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오리건, 워싱턴 주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편, 보험가입자는 녹색증권발급에 동의 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불필요한 운행자제,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등이 그것이다. 특히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험가입자는 녹색 운전습관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방출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 5)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부품 교체 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재활용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재활용부품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통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고 자동차부품 활용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감소될 경우, 이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향후 중고 자동차부품시장이 거래량 증가로 인해 보다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폭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유럽 및 일본의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중고부품 재활용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차보험료의 약 5~10% 가량의 할인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매출이 향상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중고부품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수리비가 과다·허위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보험금 누수 및 보험사기가 감소되고, 이를 통해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유인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부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적잖은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상품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4)</sup>

24) 금융감독원,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09.9.8.

## 나. 상품사례<sup>25)</sup>

### (1) 북미

미국, 캐나다의 경우 사고차량 등에 대하여 교환부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중고재활용부품, 일반부품, 순정부품 순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영향이 없는 외장부품의 경우 중고재활용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체계화된 유통망을 통하여 중고재활용부품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동일한 부품의 경우에도 여러 업체에서 공급하는 부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도 공급업체별로 다양하며, 보험회사는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정비공장에 통상적으로 부품가격의 약 20~25%의 마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엔 보험업법 및 뉴욕주 보험청 권고지침에 의해 손상차량 부품과 동등 성능 이상의 중고재활용부품 및 일반부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 중고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약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 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유럽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중고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5~10% 정도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은 Admiral사 등 7개 보험사가 재활용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험수리차량의 수리작업에 중고재활용부품을

25) 금융감독원,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09.9.8 및 CEO Report, “자동차 재활용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한 보험업계의 녹색성장 경영전략”, 보험개발원, 2009.9 등을 주로 참조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Admiral사는 고객의 자동차 수명이 3년 이상인 경우 보험사는 제조업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준의 재활용된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Allianz사의 'Recycled Parts in Vehicle Repair' 프로그램은 차량 수리 시 재활용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다른 차량의 보험사, 그리고 자동차 수리공과 제조업체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재활용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1,000유로를 청구할 때 평균 240유로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된 녹색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4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Allianz사의 승인된 수리공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차량에 적합한 재활용된 녹색 자동차부품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데에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Achmea사는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관련 보험의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아울러 차량소유자들 및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시작한 이 회사는 2002년에 80,000개의 보험을 계약하였고, 동 상품으로 2001년 'Dutch Environmental Award'와 2002년도에 '유럽환경대상(Europe Environmental)'을 수상하였다.

### (3) 일본

일본의 경우 일반부품 및 중고재활용부품이 전체 충돌부품시장의 약 58.7%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에 재활용된 중고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

별약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자차보험료의 5~1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다.

Sompo Japan Insurance사는 재활용된 자동차 부품의 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70,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재활용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okio Marine & Nichido사도 자사의 고객들에게 손상된 부품을 수리할 때 재활용되거나 재건된 구성품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2008년 중 재활용된 부품을 이용하여 범퍼를 수리한 것이 약 170,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isshin Fire & Marine사에 의해 판매되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보험인 'Asante'는 차량 사고 시 지정된 정비소에서 재활용된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할 경우 보험료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준다. 아이오이 손보사의 경우엔 '피보험자동차를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비' 중 부분품의 교환에 따른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해 부분품이 리사이클(재활용) 부품인 경우의 가격에 따라 정한다는 특약을 규정하고 있다.

## 6)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sup>26)</sup>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재물손해 및 소송비용, 정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사고발생이 점진적일 수 있으며, 피해 형태가 다양하고 넓은 지역에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

26) 삼성화재, "환경 Risk와 보험대책", 위험관리, 가을호 2002, 이기형,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연구자료, 보험연구원, 2008.3 등을 주로 참조

된 사고의 손실은 그 규모가 크며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환경오염의 원인 행위와 피해발생의 시차적 괴리가 존재하며, 오염물질 또는 손인(peril)간에 상호 작용성을 갖는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기업 등에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재정증명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환경오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에 있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적절한 재정적 위험전가(risk transfer) 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항시 오염사고 위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거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되고,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을 통해 사전적 재정증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해당 기업 및 보험사로 하여금 오염사고 예방 및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물론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차기 보험료의 상승 및 보험인수의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사전적 오염예방 및 자율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는 통상 그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 기술컨설팅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급은 환경오염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사고 등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거나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통한 보상해결은 환경오염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나. 상품사례

### (1) 미국

미국의 환경보험은 대부분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형태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약관 단독, 여러 형태의 개별 환경오염배상책임(EIL: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약관, EIL 및 CGL 통합약관, 기타 통합약관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법규위반, 징벌적 손해배상금, 사전에 알려진 피해, 계약상의 책임 및 생산물관련 책임 등은 면책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환경오염관련 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로는 ACE, AIG, Germini, Zurich사 등 10개사이며, 연간 보험료 규모는 약 10억 달러~20억 달러(2006년 기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유럽

유럽 국가들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공동보험(pool)의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다. 공동보험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프랑스(Assurpol, 1989년), 영국(CEILIF, 1989년), 이탈리아(Inquinamento, 1979년), 덴마크(Dansk Reassurance, 1992년), 스페인(Espanol), 네덜란드(MSV plan)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보험사별로 환경오염 위험과 관련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보험을 살펴보면, 1991년에 환경배상책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배상책임보험자협회의 새로운 환경오염 배상책임 Model약관이 판매되었다. 1991년에 제정된 환경배상책임법에서는 96개 업종에 대하여 환경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등을 통해 법적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배상책임 보상한

도액을 신체손해 DM 160백만, 물적손해 DM 160백만으로 정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오염 손해당 FIM 3천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2개의 보험단체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EU는 2000대 초부터 국가들 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환경배상책임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4월 ‘환경배상책임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제정하였고, 회원 국가는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2007년 4월 30일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 (3) 일본

일본의 경우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판매중인 보험으로 일반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보험, 산업폐기물배출자보험 등이 있다. 이 중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1992년 6월부터 AIU보험사, 일본화재해상보험사, 안전화재해상보험사(현 Sompo Japan) 등 3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동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 또는 ‘점진적인 오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작업’과 관련된 오염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및 오염정화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일본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상한도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상한도액은 화학업종의 경우 약 100억원,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약 50억원 정도이다. 의료폐기물배출자보험은 2001년 Sompo Japan Insurance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의료폐기물 수탁업체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을 때 관련된 조치명령, 제거 및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된 개인의 건강피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보험도 유사한 기능의 상품으로 Sompo Japan Insurance사가 2002년부터 판매 중인 상품이다.

#### (4)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엔,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의 오염담보특약 형태로서 환경오염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진적 오염(gradual pollution)까지 보상하는 여러 형태의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EIL) 보험은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주로 화학, 섬유 및 전기·전자업종 위주의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 오염담보 특약분에 해당하는 순보험료 규모는 약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7) 친환경농산물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보험은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하여 약관상에 정해진 피해를 당하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보상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생산자 입장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소위 유기농) 높은 가치의 농작물 생산에 대하여 관련된 세부적인 리스크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보험은 서리, 가뭄, 우박,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홍수 등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보험은 이와 더불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 병충해나 잡초에 의한 피해, 농작물 발육부진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 초래되었을 때 일정한 수익에 대한 손실분을 추가로 보상해 준다. 한편, 유기농법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산물보다 수확량은 적은 반면 가격은 더 높은 것이 특징이고, 그 특성상 일반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험료 결정은 이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해 주는 상품을 들 수 있다. 동 상품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친환경농업인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 및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보상이 주어진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여 신체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주어진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보험을 통해 유기농법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가 촉진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상품사례

### (1) Saskatchewan Crop Insurance

캐나다의 Saskatchewan Crop Insurance Corporation(SCIC)은 캐나다 농림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유기농 농산물과 관련된 보험을 포함한 농작물보험(crop insurance)을 제공한다. 2009년 기준으로 SCIC의 농작물보험 프로그램은 ‘Multi-Peril Insurance’, ‘Organic Insurance’, ‘Forage Insurance’, 그리고 ‘Weather Based Insurance’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Organic Insurance’(유기농

보험)는 높은 가치의 유기농 농산품의 보증을 희망하는 생산자에게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위험을 보상하여 준다.

유기농보험은 지역별 작황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농작물들이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반면 부적합 종류일 경우엔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유기 농작물로는 보리, 캐나다 초원 봄밀, 거친 붉은 봄밀, 카나리아 씨, 캐놀라, 겨자(노랑, 갈색, 아시아산), 오토밀, 호밀, 해바라기 등이 있다. 한편, 보험가입 대상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사용할 토지가 유기농 보상범위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유기농보험의 보상범위 수준,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보험가입자)는 평균 생산액의 50~80%의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생산자가 40%를 부담하며, 나머지 60%는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전통적인 농산물과 유기농 농산물 두 가지에 대하여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상수준의 선택은 유기농보험과 전통적 농산물보험의 경우 동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유기농 밀에 대하여 70%의 보상범위를 선택한다면 전통적인 야마 농산물의 경우도 70%의 보상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평균적으로 유기농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농작물보험에 비해서 보험금이 더 높게 청구되고 지급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농작물에서보다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보험료율이 평균 25%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보험은 일반적으로 가뭄, 홍수, 우박, 서리, 눈, 바람, 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 우연한 화재, 야생동물, 곤충, 메뚜기 그리고 식물 질병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여 통제되지 못하는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다. 통제될 수 있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만약 손실의 원인이 명확히 구분가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범위 또는 보상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다.

## (2) LIG 손해보험

우리나라의 경우 LIG손해보험사가 이미 2009년 4월에 전라남도 산하 22개 시·군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 상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훼손·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의 80%는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친환경 농업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330,800원 정도이다. 보상액 한도는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 1인당 1억원, 1청구당 1억원, 연간 총 1억원이고, 잔류농약 위험의 경우엔 1인당 5만원, 1청구당 5백만원, 연간 총 1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민간보험사와 공조하여 이러한 친환경농산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것은 친환경급식학교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생산농업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보상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고, 아울러 유기농 농산품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 또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NH생명·화재

NH생명·화재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안심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동 상품은 소비자가 이물질 및 훼손·부패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섭취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라 업체당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판매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연간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생산자 신뢰회복 비용으로 재검사비용과 광고비 등도 보상된다. 가입대상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포장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보험가입 대상 생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등이 해당된다.

## 8)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sup>27)</sup>

기후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및 재생·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자 또는 관리자로서 특히 보험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들은 에너지절약 및 재생·청정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된 역할을 자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에너지절약보험(energy-savings insurance: ESI)은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 프로젝트의 설치자(installer) 또는 소유주(owner)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에너지절감 성과가 예상한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보험 시장의 잠재 규모가 약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ESI 시장이

27) 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April 2009 등을 참조

그리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고, 아울러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동 보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과 혁신적인 접근방식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renewable-energy project insurance)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개시 지연, 조작상 손해, 사업 중지 및 제3자 책임 등)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다. Marsh사의 설문조사<sup>28)</sup>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많은 보험사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형적인 8가지 형태의 에너지원(energy from waste, small scale hydro, geothermal, solar PV, biomass/biofuels, tidal, wave, wind) 중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재생에너지원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규모는 2006년 55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시장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상품사례

### (1) 풍력발전과 관련된 보험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Willis Holdings사와 Tokio Marine & Nichido사는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가 사전에 미리 결정된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풍력발전 생산자에게 보상이 지급되고, 실제 성과가 기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제공자에게 보상이 지불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Sompo Japan Insurance사도 풍력과 태양전지 시

28) Marsh, "Survey of Insurance Availability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March 2006.

시스템에 대한 재생에너지보험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Navigators Group은 풍력 터빈(wind turbine)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하, 개시 지연, 조작상 손해, 사업 중지 및 제3자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Swiss Re사는 탄소상쇄(carbon offset)보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풍력 발전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2) 태양광 발전,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보험

2008년 Munich Re사는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원의 변동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부족분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AXA사도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생산 부족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Munich Re사는 지열에너지 생산 회사가 직면하는 탐사위험(exploration risk)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독일에 소재한 AXA지사의 경우 지열에너지 개발과정에서 유발되는 생산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Aon사는 최근 바이오에너지(biofuels) 산업을 위해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부문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3) ACE사

미국 ACE사는 전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운영 등의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E사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보험상품의 제공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로 biomass/biofuel(바이오에너지), biogas(바이오가스), energy from waste(폐에너지), fuel cell(연료전지),

solar power(태양광), wind power(풍력) 등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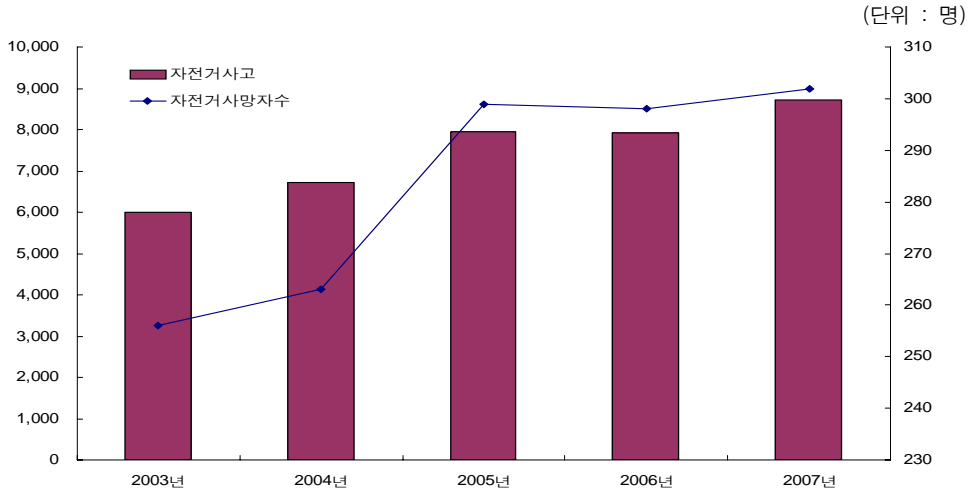
## 9) 자전거보험

### 가. 상품내용 및 기대효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또는 운전 중인 자전거와 부딪혀 입은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손해와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중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지칭한다.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다음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와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자전거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유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보호 실천 유인 등으로 점차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전거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그림 4〉 지난 5년간 자전거관련사고 사망자 수



자료 : 경찰청, 삼성화재

## 나. 상품사례

### (1) Real Insurance

호주 Real Insurance사의 자전거보험(bicycle insurance) 상품은 자전거와 관련하여 개인의 목적 및 취향에 따라 그리고 간단한 보상에서부터 다양한 보상 범위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동 상품은 자전거 사용 중 발생하는 개인적인 상해, 사망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고를 보상하며, 자전거의 분실이나 파손,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자전거 구입일로부터 2년 안에 분실을 입증한다면 새 제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를 이용한 해외여행, 자전거 장착품 및 가방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는 특약도 가능하다. 가입 보상 한도는 2만 달러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 상해의 경우 자전거보험 증서상의 피보험자인 경우만 보상을 받게 된다.

## (2) E&L Insurance

영국 E&L Insurance사의 'Cycle Insurance'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개인 상해, 자전거 및 자전거 부대용품 등에 대하여 £5,00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동 상품은 크게 일반 레저 또는 통근 목적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leisure plan과 준 전문적인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compete plan으로 구분된다. E&L Insurance사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전문적인 cyclist의 경우엔 동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동 자전거보험 상품은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4~18세 가입자와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의 할인, 그리고 2대 이상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 (3)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소위 녹색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다. 삼성화재의 녹색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상해 및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성인용(만 15세~59세) 상품과 어린이용(만 5세~14세) 상품으로 구분된다. 동 상품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그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상품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상해 사망 및 장애, 교통상해 사망 및 장애, 자전거사고 벌금 및 방어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LIG손해보험도 자전거보험 상품

을 시판 중에 있는데, 동 상품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배상책임 및 법률 비용 등 자전거와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 2. 녹색사업<sup>2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가 녹색경영의 한 형태로서 본연의 고유 핵심업무와 관련된 녹색보험을 통해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소위 녹색사업을 통해 다른 여러 방면에서 지구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히,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 위험관리(예방사업) 측면, 자산운용(투자업무) 측면, 교육 및 캠페인 측면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 보험사의 녹색사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의 녹색사업

보험업종도 다른 업종 못지않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보험사의 경우 제조업체, 정유업체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건물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IT 작업, 각종 영업활동 등에서 소비되는 물품들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유발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eres(2009)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이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의 양이 약 1,200만 톤에 달하고 있고, 이는 약 240만대의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내부 운영 차원에서도 환경

29) Green, M., "The Green Wave, Best's Review", March 2008, 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April 2009 등을 주로 참조

보호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녹색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내부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들을 통해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들이 사내운영과 관련된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in-house energy management program)을 마련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Sompo Japan Insurance사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2002~2004년 기간에 약 22%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의 Allianz, Axa, State Farm, Tokio Marine Nichido, Traveler사 등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로부터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오고 있다. 예를 들어 Esurance사의 경우, 손해사정직원들에게 외부활동을 위한 회사차로 일반 자동차가 아닌 하이브리드(hybrid)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최대 손보사 중의 하나인 State Farm사의 경우도 회사 차원에서 100여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3,000여대의 플렉스 연료(flex-fuel)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Co-Operators General사는 동 보험사가 보유한 400여대의 회사차량의 운용과 관련하여 3년간 온실가스를 20% 이상 줄이는 프로그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보험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에너지시스템 자체를 아예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Swiss Re, ING, Tokio Marine Nichido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한편, 회사 내부운영과 관련된 환경보호 방안 외에 자사 직원들이 가정 등 회사 밖 생활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보험사들도 있다. Swiss Re의 경우 'COyou2 reduce and 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 밖의 일상생활(가정의 난방시스템, 개인용 자동차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환경보호를 실천할 경우 해당

직원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대 약 4,800달러 가량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527명의 직원이 혜택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된 녹색사업 사례를 회사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lianz Austria사의 경우 2008년 1월 'WWF(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 Climate Group'에 가입함으로써 동 보험사가 향후 3년 이내에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배출을 15%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선언하였고, 이후, 이미 2년 동안 20% 가량의 전력 소비와 40% 가량의 가스 소비를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Allianz Austria사의 현대화된 난방시스템 설치(IT와의 접목방식), 종이 없는(paperless) 업무부서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 보험사의 CEO인 Wolfram Littich는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험사의 주요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Fireman's Fund사의 경우, 본사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창문에 반사 필름(reflexive film)의 설치, 환경친화·효율적인 전등으로의 교체, 화장실의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장치의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본사 건물 외에도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사 건물들도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 LEED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사도 보험사 운영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 왔다. 구체적으로 회사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전기 절약, 전기사용의 효율성 제고, 탄소상쇄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전반적인 전력 소비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Travelers사의 경우 미국 Minnesota주의 St. Paul Travelers와 Connecticut주의 Hartford에 주력 사업체가 소재해 있는데, 모두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Energy Star Label’을 획득하였고,<sup>30)</sup> 두 사업체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사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New Jersey주의 Newark에 본사를 두고 미국 전역에 28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총 직원수 20,992명), 우리나라에도 법인을 두고 있는 Prudential 보험사도 전국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 내부 운영 차원에서는 재생(recycling)종이 활용 등을 통해 2006년 기준으로 약 600톤 가량의 종이를 재활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transit check’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회사 건물에 대한 집약적인 진단컨설팅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회사 건물내의 모든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위 ‘energy-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통해 지난 10여년 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 또한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51년 설립된 생명보험 상호회사인 미국의 MassMutual사는 거의 25년 가까이 환경보호를 위한 회사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전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모터와 HVAC 등을 설치하였으며, 106 acres의 크기에 7개의 건물을 두고 있는 본사(Massachusetts주의 Springfield 소재)의 경우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 대신 천연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내의 모든 프린터는 자동적으로 양면 복사되도록 고정장치가 되어 있으며, 모든 새로이 구입되는 종이의 최소한 10% 이상은 재생종이로 만들어져야 하고, 기존의 다른 종이물들은 모두 100%

---

30) Energy Star program은 1992년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the U.S. Department of Energy가 공동으로 마련한 환경인증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2006년 한해 기준으로 약 2천 5백만대의 자동차로부터 유발되는 양에 상당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종이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업무에서 가능한 종이 또는 프린트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인트라넷(intranet) 등과 같은 전자상(electronically)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잘 이행할 시에는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 내부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녹색경영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도,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도 유사한 방안들을 통해 이러한 녹색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보험사 위험관리(예방사업) 측면의 녹색사업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 및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보험사의 녹색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사야말로 각종 위험의 담보·보장 등을 통해 이러한 기후변화위험 등과 관련된 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파급영향이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기여 차원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모델의 개발, 기업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우선, 주요 선진 보험사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연구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재해 예측 및 영향, 에너지효율 등

에 관한 연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Swiss Re, Munich Re, Zurich, Arkwright Mutual Insurance Company, Insurance Australia Group, West Bend Mutual Insurance Company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지원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Tokio Marine Holdings사의 경우 University of Tokyo 및 Nagoya University와 협력하여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자연재해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tlin Group의 경우 북극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프로젝트인 '2009 Arctic Expedition'을 지원하고 있고, Willis사는 국립환경연구단체인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Benfield사, RSA사, 미국의 Crawford & Company사 등 많은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엔 주요 보험사들이 'IBHS(Institute for Business and Home Safety)'라는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개별 가구 및 기업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사전에 감소 또는 차단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 기업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자동차,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현장(onsite) 위험관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미국의 FM Global 보험사의 경우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05년 카트리나(Katrina)태풍이 발발했을 당시, 평소 FM Global사의 위험관리 및 사고예방 교육 등을 받아왔던 개인 및 기업 가입자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약 85% 가량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기업 및 건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관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부터 기업

및 건물주들은 기계장비 고장, 기업 및 건물주의 배상책임, 업무휴지(business interruption), 종업원의 질병·사고 위험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연관된 각종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이는 손해율 감소를 통해 해당 보험사의 수익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개별 보험가입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위험관리 프로그램 외에, 보험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환경보호 등의 차원에서 토지, 숲, 농경지,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역사회 및 정부 등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2004년 Insurance Australia Group은 뉴질랜드의 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보험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도 지방자치단체들에 홍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자문활동을 전개해오고 있고, 미국의 AIG사도 뉴욕시의 기후변화패널(New York City Panel on Climate Change)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주요국 보험사들이 온실가스 등 환경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숲, 습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Tokio Marine Nichido사의 경우 1999년부터 인도네시아, 피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 약 13,331 acres규모의 숲을 보존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 사에 따르면, 해당 숲 지역이 2005년 동남아를 휩쓸었던 쓰나미(tsunami)로부터의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덜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적인 보험 인수업자 단체인 Lloyd's of London의 경우 보험사가 열대림 등 지구상의 숲을 보존하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영국왕세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열대다우림 보호 프로젝트인 'PRP(Prince's Rainforests Project)'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의 많은 보험사들이 소위 ‘후광효과(halo effect)’라 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당성으로는,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건물운용 또는 유지 등에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험사의 관점에서 보다 저위험(low-risk)군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친화적인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일상 업무나 생활에서도 주의가 깊고 위험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Traveler 보험사의 경우 동사의 보도자료에서 “우리 보험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소위 녹색기술을 접목시킨 사람은 보다 위험관리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이고, 건물 유지 및 관리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1)</sup>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도 이러한 소위 후광효과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사가 많은데, 예를 들어 fuel-economic(연료절약) 차량, low-emission(저배기 가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운전자에 대해 많게는 보험료의 50% 가량을 할인해 주고 있다. Sompo Japan Insurance, Tokio Marine Nichido, Farmers Insurance, Zurich, Axa, Berkshire/Geico사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계 보험사인 Axa의 경우 저오염배출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Axa France 50%, Axa Canada 10%, Axa Switzerland 20%, Axa Thailand 및 Ireland 20~30% 등의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1) “Travelers Commercial Property Coverage Goes Green”, News Release, Travelers, 2008.

### 3) 보험사 자산운용(투자업무) 측면의 녹색사업

#### 가. 대출업무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또는 투자업무 측면에서도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단 중의 하나인 대출과 관련하여 친환경주택 등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상품이 존재한다. 벨기에 Fortis 보험사의 경우 친환경적이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또는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율을 우대해 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KBC Group도 ‘Green Energy Loan’이라는 상품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구 등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Axa Belgium이 출시하고 있는 ‘Energy Home Green Loans’도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상품 출시 11개월 만에 1,000여건이 팔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외에도,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Fortis사의 Green Bank는 2006년말 기준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총 1억 6백만 달러 규모의 조달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업 부문도 운영하고 있는 HSBC사의 경우도 인도의 풍력발전사업에 4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준 사례가 있다.

#### 나. 친환경 기업 및 사업 관련 투자

보험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투자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친환경 기업 및 사업 등에 대한 보험사 투자활동의 경우 전 세계 주요 15개 보험

사 기준으로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전체 친환경 관련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일개 기업이 친환경 사업 및 기업 등에 투자하는 유인으로는 소위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premium return)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유인 외에 또 하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보험사를 비롯한 대형 금융회사 등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파생상품 등의 발달로 인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에 적잖게 노출되어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은 보험사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도 친환경 기업 및 사업과 관련된 투자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32)</sup>

보험사가 친환경 기업 및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IG사의 스페인의 태양열 광전기 프로젝트(solar photovoltaic project)에의 투자, Swiss Re사의 대체에너지, 수질 및 폐기물 관리(water and waste management),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투자, Prudential사의 풍력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등이 있고,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외의 많은 주요 선진 보험사들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선진 보험사가 친환경 기업 및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32)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인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경우 보험사의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투자활동을 주요 이슈로 인식하여 관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해 오고 있음.

〈표 13〉 주요 선진 보험사의 친환경 기업 및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

보험사	친환경 관련 투자활동
AIG	- 스페인의 18-megawatt 태양광 프로젝트(solar photovoltaic project)에 투자
Swiss Re	- 1996년 이래 대체에너지, 수질 및 폐기물 관리(water and waste management),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해 주로 투자하는 자산 portfolio를 운용(2006년말 기준 3억 2천만 달러 규모) 중 - 2007년 4월, 약 4억 2천 9백만 달러 규모의 친환경 펀드인 European Clean Energy Fund의 설립을 선언 - 또 다른 친환경 펀드인 'CleanTech Venture Fund'(2008년 기준 약 5억 달러 규모) 운용
Prudential	- 2007년말 현재 5억 달러 규모의 풍력에너지사업에 투자하였는데 동 사업은 약 500,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Allstate	- 2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관련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2배 가량 늘릴 계획임.
Co-operators	- 바이오 에너지 생산업체인 EverPURE Biodiesel에 투자
Sompo Japan	- 1999년 친환경 관련 펀드(eco fund)인 'Sompo Japan Green Open'을 설립하여 1억 달러 규모로 운용중이고 참여기업이 120여개에 달함. 동 펀드의 설정 이래 실적이 Tokyo Stock Price Index를 약 10% 가량 상회
Munich Re	- 기후변화 관련 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KlimaStrategie Equity Fund'의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AIA Pension and Trustee	- 홍콩에서 JF Asset Management와 공동으로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green fund를 최초로 설립
Axa	- 지구기온 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는 기술 및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로 투자하는 'WF Clean Tech Fund'를 설립하여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4천만 달러가 투자됨.
Fortis	- 네덜란드에서 'Start Green Sustainable Innovation Fund'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부문에 주로 투자
Allianz	- 친환경 펀드인 'EcoTrends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 환경 보호, 수질 제고 프로젝트 부문에 주로 투자(2007년 6월 기준 약 14억 달러 규모)

자료 : 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2009.

#### 4) 보험사의 교육·캠페인·정책활동 측면의 녹색사업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을 통해서도 녹색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선진 보험사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비자교육에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AA사의 경우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고, 미국 Massachusetts 주의 몇몇 보험사들은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자재 등과 관련된 교육(6시간 과정)을 이수한 소비자에게 주택종합보험(homeowner's insurance)상품의 보험료를 약 10% 가량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호주의 IAG사는 언론사인 Australian Financial Review Newspaper와 협력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Esurance사의 경우엔 동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소위 탄소배출량 계산기능(carbon calculat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 보험사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및 정책관련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7년 전 세계 41개의 주요국 보험사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ClimateWise Program'을 조직하였는데, 개별 보험사들은 동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활동,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 감축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게 된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사로는 Aviva, AXA, AIG, Allianz,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Munich Re, Prudential, Swiss Re사 등을 들 수 있다. UN 차원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지침인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nitiative'에도 동참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전 세계 주요국의 정책입안자 및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및 정책관련 활동 등

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 주요 핵심 관계자(민간, 공공 및 정부 부문을 망라한)들의 모임인 'Global Roundtable on Climate Change'가 선언문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 Allianz, ING Group, Marsh, Munich Re, Swiss Re사 등이 동 선언문에 참여하고 서명하였으며, 그 외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선언 및 정책제언서에 많은 주요 선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발전 과제

### 1. 녹색보험 발전 과제

앞의 IV장에서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여러 가지 녹색보험상품의 경우 국내에도 향후 유사한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판 중인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보험을 포함하여 녹색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도입과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녹색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법규제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어느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영보험사들은 전문인력 부족, 녹색보험과 관련된 통계데이터 등의 집적 부족, 녹색보험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신, 녹색금융 또는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제도의 불명확성 등으로 녹색보험시장에 자발적으로 선불리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보험상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해당 상품의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 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녹색보험의 장기적·지속적 사업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녹색보험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크게 환경친화적 보험상품과 관련된 발전과제,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과

관련된 발전과제<sup>33)</sup>, 그리고 보험사의 녹색보험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 1) 환경친화적 보험상품과 관련된 과제

녹색보험 중에서 상품자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여 디자인되어 있는 보험상품, 즉 소위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을 몇몇 구체적 녹색보험상품의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업무관련 등으로 운전거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대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고, 운행측정 장치 설치 등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와 같이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이 강제가 아닌 선택에 의해 운용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 등과 같이 업무상 운행거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엔 운행거리연계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행거리 측정 등을 위해 소위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 장치는 단순히 운행거리 측정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녹색보험상품인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친환경적인 자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주택 소유주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예 :

33) 진 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의 역할”,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9.10 참조.

세금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요국 보험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투명하고 정확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의 평가를 위해 국내에도 미국의 'LEED'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차 재활용부품을 이용하도록 유인함에 있어 단순히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부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재활용부품 사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동차 재활용부품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부품의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재활용부품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재활용부품 정비업체 등 그 외에 자동차 재활용부품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촉진을 위한 일환 중의 하나로 친환경농산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기후 등 자연환경에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좌우되는 경향이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기후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친환경농산물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험사가 단독으로 감당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등이 손실부담에 대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재보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친환경농작물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역선택 및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사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적절한 대책 또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판되고 있는데, 상품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까닭에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상품보장 내용 중 자전거의 파손 및 도난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동 상품이 결국 기존 개인상해보험상품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자전거보험에서와 같이 자전거의 파손 및 도난에 따른 손실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 2)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과 관련된 과제

이상에서와 같이 상품설계가 환경보호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보험상품 외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등과 같이 녹색산업을 보험의 기능을 통해 지원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측면에서의 발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녹색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투자 또는 융자 형태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녹색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단계에서부터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보험상품이라는 수단을 통해 헤지함으로써 녹색산업이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저

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보험사의 상품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향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DM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CDM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리스크, 개도국의 제도변화, 예상보다 낮은 탄소배출권이 생성되는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녹색산업으로 하여금 관련된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든 리스크 등으로 인해 진출을 꺼려하였을지도 모를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녹색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다.

녹색산업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해당 보험사가 녹색산업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소재 또는 첨단기술 등이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서 CDM사업의 예를 들며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외적인 부분의 리스크(예 : 정치적 리스크, 외환리스크 등)가 존재하게 된다. 보험사가 해당 녹색산업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 산업 분야가 특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사의 위험인수 기능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선결 필수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해당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있어 풍력, 태양광 사업 등에 특화된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34)</sup>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아직까지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한 녹색산업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발전단계 등도 산업별로 상이하므로 어떤 분야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녹색산업과 연관된 보험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해당 녹색산업이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 중 어느 리스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향후 보험회사의 녹색산업 지원과 관련된 상품개발에 있어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보험사의 경우 녹색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통계 데이터 등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또는 보험사들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녹색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과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34) 구정환,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조사보고서, 한구금융연구원, 2009.  
12 참조

### 3) 보험사의 녹색보험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국내 보험사가 녹색보험시장에 참여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탄소배출권 및 환경오염 저감 수단 등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경우 녹색산업 및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sup>35)</sup> 이러한 정책들이 구속력이 없어 민간부문이 정부의 유인책에 부응하여 실제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금융시장에의 보험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및 확대는 개별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보험상품의 개발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녹색부문에 대해 자금을 투입하고자 하는 주체는 녹색사업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한 이유로 녹색사업에 진출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녹색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이 저해된다. 이는 결국 녹색산업 또는 녹색성장의 퇴색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녹색보험의 대상 또한 점차 줄어들어 가는 일종의 악순환의 사이클(vicious cycle)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녹색금융상품의 출시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한다거나 단기적인 재무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35)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구정환, 2009 참조).

목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금융상품이 지속가능한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금융상품이 단기적으로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 상품을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제고되는 선순환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사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녹색보험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향후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CDM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는 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별하여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신 성장 비즈니스 영역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열·태양열·풍력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와 같은 대체에너지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녹색보험 분야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시행에서부터 운용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녹색보험에 특화된 소위 '녹색보험전문회사' 및 녹색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중개기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리스크에 어느 업권보다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

36) 본 보고서의 IV장 참조

보험사의 손실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은 궁극적으로 보험사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새로운 사업영역의 기회도 또한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2. 녹색사업 발전 과제

제조업 등 본연의 주된 영업행위의 과정에서 또는 부산물로 불가피하게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산업과 비교해 볼 때 보험업을 비롯한 금융업은 일상 비즈니스 행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또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러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특히 금융부문은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 대다수의 모든 대중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짙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이처럼 공적 성격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일환 중의 하나로 환경적 요인을 일상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거나 일련의 영업행위 프로세스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깊은 일이고, 이는 또한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가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① 내부운영 측면, ② 위험관리 측면, ③ 자산운용 측면, ④ 교육·캠페인·정책활동 측면 등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녹색사업 실천의 중요성 및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개별 보험사별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 회사 내부에 CEO 또는 소위 'CGO(chief green business officer)'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사업 관련 전문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환경적 요인이 전사적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의 일상 비즈니스, 일련의 영업행위 및 리스크관리 등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 내부운영 측면에서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것은 보험사가 환경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요 당사자이며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험사가 그 어느 업종보다도 환경오염에 따른 손실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험사 스스로 회사의 내부운영 또는 일상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들이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수행하는 녹색사업은 현재 국내 고객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 및 금융회사의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단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CSR은 해당 금융회사의 평판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중요한 마케팅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부분의 대중이 금융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고객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회사간의 경쟁은 고객유치 경쟁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보험사는 CSR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내부운영 측면에서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 차원에서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같은 자율적인 환경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시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녹색사업은 보험사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연구활동을 하거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리스크에 노출된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활동 등을 전개하는 형태의 CSR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개별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수반하거나 실익이 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위험관리 측면에서 추진하는 녹색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동참하는 개인·기업 등에 보험료를 인하해 주거나 또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활동을 전개하는 등과 같은 형태의 녹색사업은 동 사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지원 활동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엔 특정 연구프로젝트 등의 결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협회 등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연구지원 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의 녹색사업은 보험협회 등의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녹색사업은 사회기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출 또는 투자처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녹색사업 형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자산운용 측면에서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적합한 자금운용처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사 차원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환경관련 컨설팅 업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보험사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서 해외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노하우 및 의지가 있는 다른 금융회사와 연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회사 중 중남미 개도국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경험이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 녹색 프로젝트에 진출하려고 하는 금융회사와 사업을 연계·공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공유(risk sharing)하면서 이들 회사의 전문성도 활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 또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고려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사가 수익창출 차원에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녹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종류의 녹색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이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녹색산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녹

색산업, 녹색프로젝트의 경우 불확실성 및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정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 확보가 이들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사는 용자 또는 투자처 확보를 위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선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당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향후 국내 보험회사가 해당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확보되면 독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해외 녹색산업, 녹색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은 수준이다. 과거 투자은행 업무에서 보듯이 정보와 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부문의 경우 선도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조기에 시장에 진입한 소수의 금융회사가 글로벌 녹색투자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해외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금융회사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긴 하였지만 아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에도 여전히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의 측면에서 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녹색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우수한 녹색보험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색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보험사의 경우 신상품 출시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교육·캠페인·정책활동 등의 녹색사업도 개별 보험사 차원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험협회 등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격의 녹색사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

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책당국자에 제언 등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보험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3.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과제

녹색보험 및 녹색사업 등을 통해 보험사의 녹색경영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녹색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보험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작업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며,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의 도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발굴된 상품정보를 보험사에 감독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 장려를 위해 '우수 금융신상품'의 평가에서 녹색보험을 우대하는 등 상품개발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녹색보험상품의 개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7)</sup>

이처럼 녹색보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제도적으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녹색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규제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규제 관련 리스크가 높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7) 금융감독원,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09.4.14.

최근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그리고 2005년 대비로는 4% 줄이는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경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자체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강화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도 헤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의 도입은 녹색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지속가능한지의 여부는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보험사가 새로운 규제에 따른 수요에 기반하여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나 도입된 환경규제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 보험사는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관련 규제 및 정책을 도입할 경우 단순히 단기간 동안의 녹색금융상품을 활성화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영건전성까지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또는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이 환경친화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환경을 고려한 생활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환경관련 NGO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지만 녹색보험상품을 포함한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금융회사 또한 이에 부응하여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친환경을 홍보 전략화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협회, 정부 등의 차원에서도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개별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회 등의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환경에 대한 교육에서 보험업권을 포함하여 각 업권별로 출시되어 있는 녹색금융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위험과 관련된 공시(climate risk disclosur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관련 보험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시자료를 통해 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인데, 이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구이자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총 20개 금융회사가 'CDP'에 서명한 상태이다.<sup>38)</sup> 미국의 경우 보험감독자협의회인 'NAIC

38) 2010년 3월 12일 현재 교보약사자산운용, KB국민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대구은행, 동부화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산은행, 산은자산운용, 삼성화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큐캐피탈파트너스, 템피스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해상화재보험, NH-CA자산운용, KB자산운용, SH자산운용이 CDP에 서명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험사의 공시를 강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백서에서는 개별 보험회사의 기후변화관련 공시내용이 ① 보험회사가 기후리스크 및 기후리스크의 변화를 내부 리스크 측정과정에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②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히 알리고 있는지 ③ 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인식하기에 적절한지 ④ 보험회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축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등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답할 수 있도록 주(州) 보험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공시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보험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환경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이러한 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등의 차원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산업부문의 환경리스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제조업 등 일반기업이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거나 관련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또한 투자대상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상장 대기업을 중

심으로 상장유지요건 등에 이와 같은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야 환경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해당 기업 및 이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험을 헤지하는 일환 중의 하나로 녹색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4. 소비자 차원의 과제

일반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에 대한 수요자(구매자)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므로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제고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 있어 녹색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녹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둘째,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손실이 커져서 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중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는 선제적으로 녹색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후변화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 및 정책적 차원의 혜택 제공 등과 같은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자연발생적으로 함양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요하거나 정책적 차원의 혜택을 남발하는 것 또한 적잖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규제 강화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제고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의 환경관련 인식이 향상됨에 있어 향후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협회 등의 차원에서의 역할 수행도 중요하고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VI. 결 론

정부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결국 개별 금융회사의 참여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제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CEO 등 최고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미래의 지속가능 신성장동력 창출을 향한 강력한 의지, 아울러 환경보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향상이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를 유발하고 해당 금융회사 차원의 녹색사업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향후 이와 같은 녹색금융상품 및 녹색사업을 통한 녹색경영의 실천은 해당 금융회사 CEO 등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되는 '선택 사항' 성질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향후 국제적으로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영업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개발 및 일상 비즈니스 측면 모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간의 차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구정환,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12.
- 기승도 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10.1.
- 안철경 외,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09.
- 유병규·현석원·조호정,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국내 녹색 금융 기반이 취약하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9.11.
- 유진아, 「미국 및 네덜란드 연기금의 녹색금융 참여사례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10.12.
- 이기형,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연구자료, 보험연구원, 2008.3.
- 정재욱, 「지속가능경영과 보험산업의 실천과제」,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7.4.
- 진 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의 역할」,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9.10.
- 한상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가격정책 개선방안 : 녹색 자동차보험도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0.1.
- 홍정훈,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금융조사보고서』, 2007.
- 금융감독원,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09.4.14.
- \_\_\_\_\_,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09.9.8.

- 보험개발원,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손해보험수요 추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2009.8.26.
- 보험연구원, 「자동차 재활용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한 보험업계의 녹색성장 경영 전략」, 『CEO Report』, 2009.9.
- 삼성화재, 「환경 Risk와 보험대책」, 『위험관리』 가을호, 2002.
- Antonio, S., “Farmers Develops ‘Green’ Homeowners Insurance Policy,” *Business Journal*, July 6, 2009.
- Bordoff, J. and Noel, P., “Pay-As-You-Drive Auto insurance: A Simple Way to Reduce Driving Related-Harms and Increase Equ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July 2008.
- Giordullo, S., “Insurance Companies Introduce Green Policies,” *Angie’s List*, May 1, 2009.
- Green, M., “The Green Wave,” *Best’s Review*, March 2008.
- Kovacs, P., “Homeowners and Natural Hazards,” *Canadian Underwriter*, January 2005.
- 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April 2009.
- Mincer, J. and Banjo, S., “Going Green Brings Insurance Discounts,”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23, 2009.
- Montia, G., “Allianz Offers Recycled Option for Crash Repairs,” *Insurance Daily*, January 2, 2008.
- Pereyra, C., “Farmers Insurance Goes ‘Green’ for Homeowners,” *The Insurance Expert*, Feb 27, 2009.
- Tergesen, A., “Insurance Goes Green,” *Business Week*, March 6, 2008.

ACE USA, "ACE USA Launches Green-Specific Contractors Insurance Program," *Press Release*, April 13, 2009.

California Green Solutions, "Insurance Agencies for Green Buildings," May 19, 2008.

Frost & Sullivan, "Usage-Based Insurance," 2008.

Lexington Insurance Company, "Lexington Insurance Company Introduces Upgrade to Green Residential Property Insurance," *Press Release*, November 13, 2007.

MARSH, "Survey of Insurance Availability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March 2006.

Sompo Japan Insuranc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 *CSR Communication Report*, 2006.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7*, Sigma, 2008.

Travelers, "Travelers Commercial Property Coverage Goes Green," *Press Release*, March 17, 2008.

UNEP Finance Initiative,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Current Trends and Future Opportunities in North America," August 2007a.

\_\_\_\_\_, "Insuring for Sustainability: Why and How the Leaders are Doing It," May 2007b.

US Green Building Council, *Annual Report*, 2008.

Mimeo, "Usage-Based Insurance," Frost & Sullivan, 2008.

[www.samsungfire.com](http://www.samsungfire.com)

[www.lig.co.kr](http://www.lig.co.kr)

[www.acegreen.com](http://www.acegreen.com)

[www.firemansfund.com](http://www.firemansfund.com)

[www.chubb.com](http://www.chubb.com)

[www.quoteclickinsure.com](http://www.quoteclickinsure.com)

[www.allstate.com](http://www.allstate.com)

[www.saskcropinsurance.com](http://www.saskcropinsurance.com)

[www.acelimited.com](http://www.acelimited.com)

[www.greenrankings.newsweek.com](http://www.greenrankings.newsweek.com)

[www.insuringprogress.com](http://www.insuringprogress.com)

[www.lexingtoninsurance.com](http://www.lexingtoninsurance.com)

[www.eandl.co.uk](http://www.eandl.co.uk)

[www.realinsurance.com.au](http://www.realinsurance.com.au)

[www.investor.travelers.com](http://www.investor.travelers.com)

## Abstract

### **Insurance Company's Green Management: Current Status & Future Tasks**

With global warming now one of the main issues all countries must deal with,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green management' practices have been gaining increasing attention. Active green management in the insurance industry may have a big influence on green growth and environmental initiatives as one of the largest industries in the world.

Green management by insurance companies can be divided into 'green insurance' and 'green business'. The former constitutes financial products to insure risks related to green industries. The latter stands for promoting eco-friendly business processes such as campaig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oreign insurance companies have already launched various insurance products targe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 growth. They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n insurance companies will have to continue to be aware of and stay current with the global trend of green manage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support insurance companies' green management, and ensure that related policies transparent and consistent.

This paper provides Korean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makers with some ideas to effectively instill a green management culture in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 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브로 올 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울문고 (반디 앤 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 내)
부 산	영 광 도 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 보 서 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광 주	삼복서점(운남점)	(062) 956 - 3888	신사 사거리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 이 석 호(李碩皓)

### ■ 약력

- Temple University(보험경영학 학사)
- Temple University(보험경영학 석사)
- Temple University(경영학 박사)
- 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주요 논저

- Identification of Insurer Insolvencie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보험개발연구 제18권 1호, 2007.3.)
- 방카슈랑스 발전방향(금융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07.11.)
- An Empirical Study on Purchase Intention with Different Purchase Frequency for Online Automobile Insurance: A Trust-Based Decision-Making Model Approach(공저, 리스크관리연구 제19권 제2호, 2008.12.)
- 보험저축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1호, 2009.4.)
-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에 따른 문제점과 해외사례 연구(정책조사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5.)
- The Insurance Distribution Systems and Efficiency in the Property-Casualty Insurance Industry(공저, Managerial Finance Vol.35, No.8, 2009.)
- Role of Trust in Adoption of Online Auto Insurance(공저,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Vol.50, No.2, Winter 2009.)
- A Study on Adoption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from the Aspect of Trust-Reinforcement: Approach by Gender and Purchase Intention Level(공저, 리스크관리연구 제21권 제1호, 2010.6.)

## 구 정 한(具廷翰)

### ■ 약력

- 고려대학교(독문학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대학원(경제학 박사)
- 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주요 논저

-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공저, 금융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06.6.)
-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방안(공저, 금융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08.2.)
-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금융조사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3.)
-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12.)

KIF정책연구 2010-01

###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년 10월 일 인 쇄

2010년 10월 일 발 행

발 행 인 김 태 준  
발 행 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 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